

여성의정

Korea Women Parliamentarian Network

지역구 여성 30% 공천,
성평등정치의 마지노선
이번에도 안 지키면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다

당 우세지역에 여성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공천혁명’

성범죄 후보 공천하는 정당 있는지
눈 크게 뜨고 감시할 것

여성 의원들, 인권과 복지 문제엔
당을 초월해 소신 있게 발언하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여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 옥 이
18대 국회의원(국방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5개(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보훈병원과 6개 보훈요양원 등 다양한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명예로운 3.0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개발, 국가유공자분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꼭 필요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때에 찾아가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수준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최고 수준의 전문화된
융합형 재활·요양서비스



찾아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어제는 국가유공자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여성의정

창간호 2016 · 봄호

2 — 발간사·축사

양성평등 정치,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윤원호
여성정치 발전·양성평등 정치문화 실현에 기폭제가 되기를 · 정의화
여성정치의 가치 높여 정치문화 변혁의 견인차가 되기를 · 김무성
대한민국 대표하는 여성정치 전문매체로서의 역할 기대 · 문재인

6 — 여성정치, 역사적 순간

헌정 사상 최다 여성 의원 입성한 19대 국회
호주제, '여성 연대'로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다
이목을 집중시킨 한 여성 의원의 소신 투표

8 — 여성 국회의원 현황

1대 국회 1명에서 출발, 19대 총 181명이 되기까지

10 — 여성 지방의원 현황

여성 지방의원, 20% 겨우 넘어

12 — 대선 의원을 만나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범생처럼 이 길을 가고파 — 이미경 의원
사우나가 아닌 의정활동으로 '땀' 흘리니 좋은 결과 — 나경원 의원

20 — 대선배에게 듣는다

“70년 여성운동 끝에 다다른 것은 통일을 향한 열망” — 김정례 고문

24 — 19대 여성 의원 입법현황

46명이 총 2688건 발의, 1인 평균 58.4건 꼴

26 — 창간 특집 인터뷰

최대 성과는 '성폭력친고죄 전면 폐지' —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8 — 지금 세계 여성정치는

힐러리 클린턴과 아웅산 수치, 세계 정치 지형도 바꿀까 · 하정민 기자

32 — 시사칼럼

20대 총선, “공천할 여성인재가 없다?” · 서경교
프랑스 파리테법의 교훈 · 신윤

34 — 새해 메시지

여성 기초단체장들의 새해 포부

42 — 여성단체장 긴급 좌담회

지역구 여성 30% 공천은 양성평등 정치의 마지막 노선... 불발되면 유권자가 심판할 것
최금숙 · 정문자 · 차경애 · 김성옥 · 김방림 · 김은주

48 — 궁금합니다

전직 여성 의원들 어떻게 지내세요?
김모임 · 임진출 · 김희선 · 손봉숙 · 강명순 · 김옥이 전 의원

52 — 역대 공심위원 방담회

여성 공심위원, '여성' 대변자 역할 잊지 말고 '짱짱한' 역할 하라
이계경 · 김애실 · 최영희 전 의원

58 — 페미니스트 남성 의원

당 살릴 새 활기 '여성'에게 찾는다 — 원혜영 의원
정부가 여성의 역할과 권리 보장하도록 힘썼다 — 진영 의원

62 — 나의 의정시절

김옥선 · 김정숙 · 신낙균 · 이경숙 전 의원

66 — 여성 국회의원 패션 변천사

한복에서 청바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68 — 편집인 칼럼

'새 정치'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될 것

발행처 (사)한국여성정의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 02-786-5050/788-3341~2
팩스 02-784-0717

발행일 2016년 1월 10일
발행인 윤원호
편집인 이계경
편집위원 류지영 서영교 신명 이경숙

편집·제작 정병규디자인
인쇄 예림인쇄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2B
*〈여성정의〉는 비매품입니다

양성평등 정치,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윤원호 발행인·17대 국회의원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정치의 소통을 위한 매체 《여성의정》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의정》은 한국여성의정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값진 결과의 산물입니다.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서영희·이미경·나경원·윤원호)은 2013년 설립된 국회 인가 법인으로서, 제헌 이후 현재까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모여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예비 정치인 육성, 정치교육 등 여성의 정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양성이 평등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미래 국가 경쟁력은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단순한 숫자의 많음이 아닙니다. 의사결정권, 즉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격차지수를 보면 아직도 142개국 중 하위 수준인 1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정 역사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전원 남성 의원만으로 개원되고, 보궐선거에서 단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총 47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총 181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최근 정치 변화의 중심에는 늘 여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즉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성의정》은 여성정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전·현직 여성 의원들의 네트워크 중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성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여성정치가 우리 정치문화의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변혁을 전개하는 데 나침반이자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여성정치 이슈를 발굴하고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열린 장도 될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시대정신입니다. 즉 양성평등 사회를 일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자 우리 정치인들의 엄숙한 책무입니다. 이를 향한 한국여성의정과 《여성의정》의 의미 있는 노력을 지켜봐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치 발전·양성평등 정치문화 실현에 기폭제가 되기를

정의화 국회의장



여성정치 전문 매체 《여성의정》의 창간호를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정치의 바람직한 좌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사)한국여성의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한국 여성 정치 분야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습니다. 여성 정치인 비율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 리더의 숫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정치참여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많은 기업과 사회조직에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여성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포용력으로 무장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성의정》 창간이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발전과 양성평등 정치문화 실현을 위한 기폭제가 되길 바라며 《여성의정》과 한국여성의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여성정치의 가치 높여 정치문화 변혁의 견인차가 되기를

김무성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입니다. 계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한국여성의정은 여성정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성의정》창간은 열정적인 활동의 값진 열매일 것입니다.

1948년 제1대 국회에서 단1명이었던 여성 의원의 수는 현 19대에 이르러 1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선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가 기폭제가 되어 전체 의원 당선자 수의 14.3%에 이르는 43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등 여성정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 수의 증가에 비례해 의정활동의 질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대 국회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진입해 대한민국 선진 정치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성 의원님들이 소통과 협력의 정치, 공감의 정치를 펼쳐 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의정》이 여성정치 발전과 정치문화 변혁의 견인차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여성의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표하는 여성정치 전문 매체로서 역할 기대

문재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여성의정》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이래, 여성의정대학 운영, 여성 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정치사편찬,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조사 연구 등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의 정치 발전과 성평등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국여성의정 윤원호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입니다. 성평등의 진전이 있어야 그 사회도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나라,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유리천장이 가장 단단한 나라, 이것이 '여성 대통령 시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치권부터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당, 성평등 의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여성의정》이 여성정치 발전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정치 전문 매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의정》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제공, 국회 홍보기획관실



사진 제공, 이미경 의원실

헌정 사상 최다 여성 의원 입성한 19대 국회

19대 국회에는 개원 당시, 역대 최다수인 47명의 여성 의원이 입성했다. 전체 의석수의 15.6%에 그쳤으나, 17대 39명, 18대 41명에 비해서는 한층 증가한 셈이었다.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의원직 상실이 발생하면서 여성 의원 수는 조금씩 변화를 겪었으나, 2016년 1월 8일 현재 총 293명 중 46석을 차지함으로써 15.6%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최식 당시 개원 60년 만에 의원들이 당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속 드문드문 보이는 여성 의원들의 존재는 아직도 국회가 절대적인 남성 중심의 조직임을 일깨워준다. 총 271명(27명 불참)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 이 중 여성 의원은 42명에 불과하다.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호주제, '여성 연대'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가부장적 호주제를 폐지하는 반세기에 걸친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당을 초월한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 간의 긴밀한 연대와 분투의 성과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2월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후 유일한 여성 법사위원인 이은영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계경 의원(맨 왼쪽)이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법사위 밖 복도에서 환호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엔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였던 남인순 현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이목을 집중시킨 한 여성 의원의 소신 투표

1999년 9월 28일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한 여성 의원이 전국적인 스타로 급부상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이미경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1997년 말에 그가 속한 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되면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표결에 임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상에 올라 "동티모르 민족의 고난, 그들이 당한 참혹한 억압과 인권침해의 현실을 알고서는, 도저히 그들로부터 우리는 눈을 돌릴 수가 없다"는 발언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론에 반하는 파병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해 10월 한나라당에서 제명됐지만 이후 재선에 연이어 성공, 현역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에 이르고 있다.

1대 국회 1명에서 출발, 19대 총 181명이 되기까지



이에리사 서영교 등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여성을 30% 할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제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대 국회 여성 의원은 2016년 1월 8일 현재 총 46명이다. 제헌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여성 의원의 누적 총수는 184명(제명 3명 포함)에 이른다. 20대 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그리 많은 숫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의원 선출 총선에서 여성은 한 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같은 달 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오로지 남성 의원 200명만으로 출범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경북 안동 보궐선거에서 임영신 의원이 당선되어 여성 최초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그 후 6대 국회 의원 총선에 앞서 헌정 사상 최초로 비례

대표제가 도입됐으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 의원은 박현숙 의원 단 한 명이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의원도 박순천 의원 한 명뿐이어서 6대 국회 전체 여성 의원 수는 2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수 175명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30%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제16대 국회에 들어서 비례대표 여성 의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15대에서 9명이었다가, 16대 들어서는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례대표 50% 여성공천할당제가 시행된 17대에서는 다시 2배가 넘는 33명의 여성비례

대표가 선출됐다. 비로소 총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됐다.

또 지역구 여성 의원도 함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6대 국회까지 계속 한 자릿수에 그쳤던 지역구 여성 의원은 17대에 이르러 10명으로 늘어났으며, 19대에서는 15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됐다.

이러한 지역구 여성 의원의 증가는 비례대표 의원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즉 비례대표를 거친 여성 의원들이 국회 경합을 뚫고 지역구 활동을 통해 차기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 중심이었던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에 있어서

당선 횟수별 여성 국회의원 수

대별	전체 국회의원 수	여성의원 수
제헌	200	1
2	210	2
3	203	1
4	233	3
5	233	1
6	175	2
7	175	3
8	204	5
9	219	12
10	231	8
11	276	9
12	276	8
13	299	6
14	299	8
15	299	12
16	273	21(제명 1명 포함)
17	299	43
18	299	46명(제명 1명 포함)
19	300	52 (제명 1명, 의원직 상실 4명, 비례대표 승계 3명 포함)

비례대표제가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당선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2대, 4대 등에서 활동한 박순천 의원, 이미경 의원이 5선을 기록하고 있다. 또 15대부터 18대까지 활약한 김영선 의원과 현 의원인 추미애 의원도 4선 의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율은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정치

역대 여성 국회의원 명단

선수	인원	의원명(국회)
5선	3	박순천(2, 4~7), 박근혜(15~19), 이미경(15~19)
4선	2	김영선(15~18), 추미애(15~16, 18~19)
3선	8	김옥선(7, 9, 12), 김윤덕(8~10), 김정숙(14~16), 전재희(16~18), 조배숙(16~18), 한명숙(16~17, 19), 나경원(17~19), 박영선(17~19)
2선	27	임영신(1, 2), 김철안(3, 4), 박현숙(4, 6), 김옥자(8, 9), 서영희(9, 10), 김정례(11, 12), 김현자(11, 12), 이윤자(11, 13), 김장숙(12, 13), 양경자(12, 13), 주양자(14, 15), 신낙균(15, 18), 임진출(15, 18), 김희선(16, 17), 김영주(17, 19), 김현미(17, 19), 김희정(17, 19), 박순자(17, 18), 송영선(17, 18), 심상정(17, 19), 유승희(17, 19), 이혜훈(17, 18), 전여옥(17, 18), 진수희(17, 18), 김상희(18, 19), 김을동(18, 19), 정미경(18, 19)
1선	143	이매리(7), 김현숙(8), 모운숙(8), 편정희(8), 구임희(9), 박정자(9), 이범준(9), 이숙종(9), 이소복(9), 정복향(9), 허무인(9), 김영자(10), 김옥렬(10), 박현서(10), 현기순(10), 신동순(10), 김모임(11), 김행자(11), 문용주(11), 이경숙(11), 이영희(11), 황산성(11), 김영정(12), 박혜경(12), 한양순(12), 도영심(13), 박영숙(13), 신영순(13), 강부자(14), 강선영(14), 이우정(14), 정옥순(14), 정양숙(14), 현경자(14), 권영자(15), 오양순(15), 정희경(15), 한영애(15), 강숙자(16), 김경천(16), 김방림(16), 김화중(16), 박금자(16), 손희정(16), 안상현(16), 안희옥(16), 이연숙(16), 장영신(16·제명), 최영희(16), 허은나(16), 강혜숙(17), 고경화(17), 김명자(17), 김선매(17), 김송자(17), 김애실(17), 김영숙(17), 문희(17), 박찬숙(17), 서혜석(17), 손봉숙(17), 신명(17), 안명옥(17), 윤원호(17), 이경숙(17), 이계경(17), 이승희(17), 이영순(17), 이은영(17), 장복심(17), 장향숙(17), 최순영(17), 현애자(17), 홍미영(17), 강명순(18),곽정숙(18), 김금례(18), 김소남(18), 김옥이(18), 김유정(18), 김정(18), 김진애(18), 김혜성(18), 박순숙(18), 박선영(18), 박영아(18), 배은희(18), 손숙미(18), 양정례(18·제명), 이두아(18), 이성남(18), 이에주(18), 이영애(18), 이영애(18), 이은재(18), 이정선(18), 이정희(18), 전현희(18), 전혜숙(18), 정영희(18), 정옥임(18), 조운선(18), 최경희(18), 최영희(18), 강은희(19), 권은희(19), 권은희(19), 김미희(19), 김재연(19), 김제남(19), 김현(19), 김현숙(19), 남인순(19), 류지영(19), 문정린(19), 민병주(19), 민현주(19), 박윤옥(19), 박인숙(19), 박혜자(19), 배재정(19), 서영교(19), 손인춘(19), 신경림(19), 신의진(19), 유은혜(19), 윤금숙(19), 윤명희(19), 은수미(19), 이언주(19), 이에리사(19), 이자스민(19), 인재근(19), 임수경(19), 장하나(19), 전순옥(19), 전정희(19), 진선미(19), 최민희(19), 한정애(19), 현영희(19·제명), 황인자(19), 장정은(19)

권한 부여 점수는 145개국 중 101위이며, 그중 여성 의원 부문은 94위에 그쳤다.

이에 여성계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제를 현실화하는 강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실현하라는 주장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정주아가자

여성 지방의원, 20% 겨우 넘어

기초자치단체장 9명, 광역단체장은 전무



지난 1월15일~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호응 속에 2016년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여네는 당을 초월해 네트워킹 하며 생활 정치를 고민하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모임이다. 사진 제공,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 의원들은 총 3687명이다. 이 중 여성은 845명으로 22.91%를 차지하고 있다. 각 단체장은 총 251명 중 9명으로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 그쳐 17개 광역단체장에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그나마 각 단위 비례대표는 여성 비율이 좁 높은 편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총 84명 중 55명이 여성이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총 379명 중 363명이 여성이다.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꾸러진 현 지방의회의 여성

제6회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전체(A)	여성(B)	비율(B/A)	전체	여성	비율	
광역단체장	57	1	1.8	17	0	0.0	
기초단체장	694	40	5.8	225	9	4.0	
광역의원	지역구	1,719	198	11.5	705	58	8.2
	비례	228	161	70.6	84	55	65.6
광역의원 합계	1,947	359	18.4	789	113	14.3	
기초의원	지역구	5,377	757	14.1	2,519	369	14.6
	비례	742	668	90.0	379	363	95.8
기초의원 합계	6,119	1,425	23.3	2,898	732	25.3	
교육감	71	2	2.8	17	0	0.0	
교육위원	10	0	0.0	5	0	0.0	
계	8,898	1,827	20.5	3,951	854	21.6	

점유율은 전회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총 당선자 수는 107명 증가했고, 비율도 2.9%만 늘어났다.

여성 후보 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된 제5회 지방선거부터 여성 후보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4회에서는 여성 입후보자의 비율이 11.55%였으며, 5회에서는 17.17%, 6회에서는 20.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4명과 43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를 배출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5명과 13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 광주, 경남도 각 4명이 당선됐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87명, 8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

한편,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이 5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비례대표는 총 55명 중 53명이 초선이다. 또 기초의회 전체를 볼 때 여전히 초선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총 기초의원 732명 중 626명이 초선이다.

자료 제공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정주아 기자

지역구 선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서울	44	264 (16.7)	15	96 (15.6)	173	757 (22.9)	87	366 (23.8)
부산	17	116 (14.7)	2	42 (4.8)	55	356 (15.4)	27	158 (17.1)
대구	5	49 (10.2)	4	27 (14.8)	31	206 (15.0)	21	102 (20.6)
인천	5	74 (6.8)	1	31 (3.2)	29	208 (13.9)	15	101 (14.9)
광주	13	58 (22.4)	4	19 (21.1)	32	132 (24.2)	14	59 (23.7)
대전	7	48 (14.6)	3	19 (15.8)	22	119 (18.5)	11	54 (20.4)
울산	6	45 (13.3)	2	19 (10.5)	12	81 (14.8)	6	43 (14.0)
세종	5	36 (13.9)	1	13 (7.7)				
경기	43	283 (15.2)	13	116 (11.2)	165	775 (21.3)	83	376 (22.1)
강원	9	99 (9.1)	1	40 (2.5)	32	350 (9.1)	15	146 (10.3)
충북	4	74 (5.4)	2	28 (7.1)	26	261 (10.0)	12	114 (10.5)
충남	3	89 (3.4)	0	36 (0.0)	27	322 (8.4)	15	144 (10.4)
전북	6	74 (8.1)	2	34 (5.9)	35	394 (8.9)	13	173 (7.5)
전남	6	114 (5.3)	1	52 (1.9)	30	471 (6.4)	12	211 (5.7)
경북	3	103 (2.9)	1	54 (1.9)	43	492 (8.7)	16	247 (6.5)
경남	14	121 (11.6)	4	50 (8.0)	45	453 (9.9)	22	225 (9.8)
제주	8	72 (11.1)	2	29 (6.9)				
합계	198	1,719 (11.5)	58	705 (8.2)	757	5,377 (14.1)	369	2,519 (14.6)

* 전체: 남성+여성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역에서의 여성정치발전과 생활정치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지방의회 여성 의원 연대단체다. 전국 광역·기초 현직 의원 800여 명이 회원이며, 현재 서울 관악구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 구리시 진화자 의원(새누리당)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성평등, 생활 밀착적인 지역 현안을 개발하며 정책화하는 한편,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의 멘토 <여성의정>의 공간으로
양성평등 정치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왕정순 진화자

이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범생처럼 이 길을 가고파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연숙 16대 의원(한나라당, 현 새누리)과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계 입문 이전 여성운동가 시절로 되돌아간 듯 정겨운 추억부터 나누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연숙 전 의원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이미경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로 함께 여성운동 현장을 누비며 활약했다. 이전 의원은 대담을 진행하면서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을 기록한 이미경 의원에게 “6선을 넘어 7선까지 기록해달라. 그래서 첫 여성 국회의장을 보게 해달라”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대담자 이연숙

이연숙 전 의원은 현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정치 현장을 누비며 여성이 그 책임자임을 체감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식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5선’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것인가.

초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크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생을 살피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돼야겠다고 늘 생각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 개선에 관심을 뒀다. 국회의원이 새로 될 때마다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

했고, 상임위에 배정된 후엔 주도적으로 굵직한 법안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다. 원래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 야당인 경우 여당보다는 좀 더 불리하지만 전력투구하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가령,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와선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첫 번째 낸 법안이 ‘주거복지기본법안’인데 나중에 대안으로 통과돼 성취감을 맛보았다. 법안을 만들다보면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이 타협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빠지기도 한다. 초선 때는 이에 분개하고 좌절감도 느꼈으나 국회 경력이 더해지면서 더디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역시 실제로 법안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오래전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비례대표(15대)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16대)엔 지역구에 출마하려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 하느냐는 얘기를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화려한 정치적 이력을 쌓으며 5선을 기록 중인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위원장을 맡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의 이미경을 있게 한 가장 큰 기초가 여성의식이고 여성운동 경험”

4선 때는 사무총장으로 활약, 당 살림살이에 치중하는 ‘실무’ 노선으로

정치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워

많이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엔 지역구도 전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역구에서 밀려 비례대표가 됐다. 당시 당의 맹주인 의원이 “그 동네엔 여성이 안 돼”라며 나를 반대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세 번째(17대)가서야 꼭 당선돼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 은평갑으로 지역구를 정한 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때도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돈’이었는데, 마침 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해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해주고, 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선거

공영제를 제안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돼 용기를 얻었다.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견제 등으로 6개월 전에 비례대표를 사표 내고 세비 한 푼 없이 뛰었다. 보좌진도 급여 한 푼 없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의 밤’도 못 하고... 정말 걱정 많이 했다. 당시 6명의 후보가 경쟁했지만 은평에 첫 도전한 내게 유권자들은 51.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특유의 지역구 관리 노하우를 들고 싶다.

내 경우엔 지역 주민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의정활동에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국회의원 역할의 성찰하는 데 참 중요한 촉매제가 되곤 한다. 요즘 지역에 인사를 가면 “어, (선거)때가 왔군요” 하는 주민도 간혹 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구나’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이 의원은 평상시에도 자주 오셔” 하면 나도 웃으면서 “진 평상시에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예요” 말하곤 한다.

지역구 관리에 있어 피드백은 정말 중요하다. 지역공약 중 굵직한 공약이나 때론 학교 급식시설 설치나 화장실 보수 등 절실히 필요한 것을 수시로 점검해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등의 노력 말이다. 사실 주민들은 큰 것은 물론 사소한 것까지 다 따지게 된다. 특히 생활정치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은 더욱 간간하다. 요즘 30, 40대는 중앙정부가 서민을 위해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요즘 유권자들은 부동산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정말 많다. 보육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보육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곤 하는데, 내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니 그분들의 의견을 동료 보건복지위원들과 적극토스하곤 한다.

여성 정치인이 주요 당직을 맡는 것은 정말 드물다. 2008년 사무총장이 됐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다.

첫 여성 사무총장이기도 했지만 2년 임기를 완료했다는 데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당시 당대표인 정세균 의원과 임기를 함께 했다. 내가 사무총장이었을 때 우리당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호

남 중심 민주당, 열린우리당, 시민단체 등 여러 갈래의 야권으로 분열돼 있다가 겨우 통합을 이뤄 민주신당이란 이름으로 18대 총선을 치러냈으나 80여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대참패 직후였다. 여러 세력들이 합치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직자 수를 맞추기 위해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이 일차 과제였다. 난 우선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구조조정 작업을 전개해나갔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분들과 “능력이 부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정이 이러하니 같이 우리당을 수권정당 만드는 데 협력하는 마음으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진심이 통했는지 구조조정 과정 중 갈등이나 잡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구조조정이 된 셈이다.

한편으론 빛도 많아 이를 갚아나가면서 재정을 탄탄히 해야 했다. 당 예산을 살펴보니 행정비와 인건비로 돈을 다 쓰고 사업비 예산은 거의 없어 이를 3:3:3 비율로 만들어 예산을 다시 짰다. 때문에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했지만 이 역시 당직자들이 공감해 동의하도록 설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주요 당직 맡은 사람까지 당비를 내게 하는 시스템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비 내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당이 하도 어려워 당시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매달 100만원의 당비를 냈었다.

흔히 여성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 “정책은 잘하지만 정치는 못한다”는 우스개도 있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3선 때는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으로, 4선 때는 사무총장으로 나름 화려하게 활동했지만 솔직히 정치적으로 크는 계기

를 만들어내진 못했다. 다음 단계의 정치로 뻗어나갈 호기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정치적 목소리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난 실무형 사무총장이었다. 당대표가 당살림을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데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정치적 부각은 좀 힘들었던 것 같다.(웃음)

이미경 의원은 대담 말미에 2015년 2월부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민 생계를 정말 힘들게 하는 850만 세입자 대책에 꽂혀 있다”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상한선 제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합의 등의 성과를 일궈냈지만 “임차인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

여성 후배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이연숙 전 의원에게 그는 “이젠 여성이라도 생물학적 여성이란 이유만으론 국민께 줄 비전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바람직한 인간성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정치권에 수혈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는 국민 삶을 바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개인의 명예로만 도전하면 안 된다.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사)한국여성의정 소식지, 『여성의정』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으로 따뜻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 3선

사우나가 아닌 의정활동으로 ‘땀’ 흘리니 좋은 결과

나경원 의원(새누리)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뒤늦게 합류, 3선을 기록했다. 현재 새누리당에 선 최고의 다선 여성 의원이다. 2015년 2월엔 헌정사상 첫 여성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위원장이 돼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그는 “외통위원장 임기 시작 후 지금까지 공무 출장차 다닌 거리가 22만km를 넘는다. 지구를 5바퀴도 넘게 돈 것”이라며 “외교부에 소문이 다났을 정도로 가히 살인적인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고 자평한다.



대담자 이은영
법학자로 다시 강단(한국외국어대)에 선 이은영 17대 의원(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유일한 여성 법제사법위원으로 2005년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를 위해 맹활약했다.

이런 그를 선배 법학자인 이은영 17대 의원(열린우리당)이 만났다. 국회 임기 종료 후 다시 대학(한국외국어대)으로 돌아와 강단에 선 이 전 의원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특히 돈과 조직 면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여성’이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중점을 두고 나 의원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때론 술자리 문화나 남성 유권자 및 동료 남성 의원들 사이에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논란 등 민감한 문제도 거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원

7·30 재·보궐 선거 출마 고심, 2010년 서울시장 낙선, 2012년 19대 총선에선 당에서 공천 못 받아, 만약 재·보궐에서까지 낙선했다면 다시는 재기 어려웠을 수도.

장실에서의 대담은 시종일관 격려와 공감이가득했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힘지에 출마해 당선하는 등 3선을 기록하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겼을 것 같다. 고생도 참 많았을 텐데, 선배로서 뿌듯하다. 후배들을 위해 그 비결이 있다면 알려달라.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별다른 비결이 있다가보다 항상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인 듯싶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선거를 치른 18대 총선부터 시작해 당 최고위원 도전, 서울시장 선거 출마, 2014년 7·30 재·보궐 출마와 2015년 외교통일위원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상황들이 녹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특히 2014년 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의 요청으로 동작(을)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동작 지역이 그동안 워낙 ‘야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그런지 쉬운 선거가 아니라며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다.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2월 헌정사상 첫 여성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다시 주목받았다.

황에서의 과감한 결단과 도전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로 출발하면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내 아이와 같은 장애 아이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17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영유아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지원과 관련된 법안, 성인 후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법안 제·개정, 장애인 주거·고용 분야의 예산 확대 및 정책 개선에 앞장서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 곳곳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세대와 계층,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평등과 차별, 부조리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됐다.

지역구 관리 노하우를 알고 싶다.

많이 만나고 많이 소통하는 것 외에는 민심 얻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늘 실감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나경원의 토요일’을 열고 있다. 2014년 당선 직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9차례, 10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났다. 민원 내용을 직접 듣고 차근차근 설명도 드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주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신다. 평소 주중에는 국회 일정이 없는 한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해 동네 곳곳을 다닌다.

절대 문화나 성희롱 혹은 여성평화 등도 여성 의원에게겐 참 곤혹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나.

지역에서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 정책과 지역 사업에 대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나 인간관계 모두 원칙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처신할 때 오히려 오래도록 좋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경험상 여성 유권자의 경우 같은 엄마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때, 남성 유권자의 경우 여성 정치인임에도 결단력이나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해 나갈 때 더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

동료 남성 의원과의 네트워킹에서 애로점은 없나.

조선의원 시절 선배 동료 의원들로부터 “고급 정보는 남탕 사우나에서 오간다”는 말을 들었다. 정치에 있어서 빠른 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중요한 논의에서 항상 소외되는 것만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대신 다양한 정책 현안을 발굴해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나 각종 세미나를 열고 일로써 동료 남성 의원들과 교류의 면을 넓혔다. 결국 의정 활동으로 땀 흘리니(웃음), 사우나에서 땀 흘리지 않고도 관계망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해 준 7·30 재·보궐 선거는 후회 없는 선거전을 펼쳤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아

서 그런지 더욱 기억에 남는다.

그 때 선거에서 가장 중심 이슈가 바로 ‘무상급식’ 도입 논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공짜로 많이 나누어 쓰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무상복지의 한계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감할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어 당시의 선거 난항이 새삼 기억난다.

정치적 휴지기가 좀 있었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정치와 떨어져 보낸 세월이 33개월인데,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인 올림픽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경험했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대회의 정신이, 단지 슬로건에 머물지 않고 장애를 넘어 정치적 편견까지 허물고, 세상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으론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면서 평범한 국민의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자양분이 됐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안이 무엇인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최초로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이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미뤄온 것이 벌써 10

년,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됐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담 말미, 이 전 의원이 후배 여성 정치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나 의원은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OECD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특히 정치 분야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4%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꼬으며 “이런 현실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남성성의 리더십을 따라 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의 리더십’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여성의정』 창간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2016 총선, 지역구 30% 여성 공천 달성의 원년으로!



30% 여성 공천 이행하

2016. 1. 1 여성공천 30% 달성을 위한 기자회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이에리사 의원)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답게, 지역구 여성공천 30%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례 11·12대 국회의원

“70년 여성운동 끝에 다다른 것은 통일을 향한 열망”

지난해 12월 10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김정례 18대(한나라당)국회의원이 대선배 김정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고문과의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김 고문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자택을 찾았다.

김 고문은 11대와 12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 20대 보건사회부장관(5공)을 역임하고, 20대 때부터 시작한 여성운동으로 대한여자청년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69), 한국여성정치연맹(1991) 3개 여성단체를 발족시켜 후배들의 여성운동 기반을 마련해온 70년 이력의 제1세대 여성운동가다. 2012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비추미여성대상 ‘해리상’을 수상하면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평생 염원인 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날 대담에서도 시종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한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일에 대한 절박함이었다.

전남 담양의 농촌에서 6남6녀 중 막둥이로 태어나 독학에 독학을 거쳐 여성운동가로, 후에 정치가로 거듭난 인생 역정을 힘차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지치지 않



대담자인 김정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약하다가 정계에 입문,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다.

고 풀어낸 김 고문은 무궁무진한 얘깃거리를 가진 천부적인 이야기꾼 같았다. 격변의 현장을 버텨온 노정객이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간절히 풀어낼 때면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이곤 했다.

1926년생으로 호랑이띠인 그는 어느덧 아흔이 됐다. 근래 3년 가까이 배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엉덩이까지 차츰 시려지는 원인 모를 노환에 시달렸다고 한다. 자신의 평생 기록을 한창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젠 가려나 보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보고 싶었던 이들을 한명 한명 불러 얘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느새 그를 괴롭혀왔던 증세가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다. “통일 못 보고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너, 통일만은 보고 가라 하시는 역사 아니겠느냐”고 빙그레 미소지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내면서 어느새 재야운동에 몸담았다가 정치권으로 불려간 거지. 광복 후 3·8선으로 두 동강이나 좌우 이념대립으로 격하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해방된 국민은 역사 제대로 보고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어.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곧잘 해서 유치장에도 몇 차례 들락날락거리면서 “담양의 여장부”란 별칭을 얻기도 했지. 그래도 하도 오해를 받으니 당시 경기도수원에 있는 조선민족청년단(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참모장이었던 철기 이범석 장군을 중심으로 1946년 발족된 청년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오면 더 큰일을 할

70년 이력의 1세대 여성운동가,
11·12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역임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연맹
발족시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탄생에
큰 기여

2012년 비추미여성대상
‘해리상’ 수상

수 있을 것이란 지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300여 명의 여성들과 한 달간 훈련을 받았지. 당시 박순천 여사 등 유명인사들이 강연을 했는데 “해방된 청년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지. 나도 우리 반 대표로 나서서 “해방된 한국 여성들은 먼저 배워야 한다”며 “씨알 데 없는(쓸데 없는) 허영심에 날뛰지 마라”는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때문에 “씨알 데 없는 동지”라는 애칭 아닌 애칭을 얻었지.(웃음) 거기서 인연을 맺은 친구들 덕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여수·순천 사건이 났을 땐 상황을 알아보려 거기로 출장가기도 하고... 이렇게 재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된 거지.

그래도 정치권의 직접적인 러브 콜이 있었을 텐데요.

내가 이렇게 투쟁을 너무 하다 보니 어느새 “골치 아픈 여자”로 정권에 찍혀버렸지. 우리 집엔 늘 구속자 가족과 재야 운동권 인사들이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난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쌍용 창업주 성곡 김성곤 회장 부부



김 고문은 후배 여성 정치인들에게 “특히 인권과 복지 문제에 있어선 당을 초월해 소신있게 발언하라”고 당부했다.

와 참 친했어. 박 대통령 부부가 김 회장 부부에게 “그렇게 김정례씨와 친하다면 서 우리 공화당에 왜 포섭을 못 하느냐”며 회유 반 질책 반 하셨다고 해. 난 여성 계몽운동에 관심이 많고 정당활동을 할 생각이 없어서 김 회장 부부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 1년간 이들과 발길을 끊기도 했어. 김 회장 부인이 “이번에도 승낙 안 하면 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해요”라며 사정사정해서 대선 치를 때 잠깐 공화당에 입당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장군이 정권을 잡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일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당시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등 친하게 지내던 이들이 전두환 보안 사령관을 만났는데 그런 면담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러다가 전 사령관이 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이 기회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생각했지. 면담 자리에 가니 전 사령관이 광주에 대해 먼저 말을 하려 해서 그의 무릎을 탁 치면서 “장군님, 오늘은 제 얘기만 들어주십시오. 내 정보를 들어야 제대로 된 민심을 알 것이요” 하곤 기분 좋게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왔지. 후엔 고 조아라 광주YWCA 명예회장이 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전라도 모든 도민에게 지지받는 어른이요. 왜 잡아서 형을 주려 하느냐, 당장 석방시켜 줘라” 촉구하기도 했지.

이런 인연 때문인지 전 장군이 특명을 내려 “김정례를 끌어서 국회의원 시키고 여당 사람 만들라”고 했다고 하네. 지인들도 “박통 별세 후 나라가 한창 어지러운데 비판만 하고 다니면 다냐. 생산적인 일 좀 해라”고 권했고, 그렇게 해서 11·12대 총선 때 성북구에 출마해 다당

선배 정치여정을 시작하게 됐지.”

김 고문은 당시 청와대의 배후실이 파다했던 회대의 대규모 어음사기 사건, 일명 ‘장영자 사건’ 여파로 당 고위 간부의 사표가 다 제출됐는데, 그중 자신의 사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보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보도를 듣게 됐다는 후일담을 전해주었다. 전문성이 없다고 고사하는 자신에게 전 대통령은 “비서실이고 정당이고 간부고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라 지시 내렸으니 걱정 마시오”라고 단언했고, 그 덕분에 인지도 달 모자란 3년 임기를 채우고 나오면서 큰 파도가 없었다는 점을 지금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전한다. 그는 당시 여성복지를 위해선 남녀차별적인 근로 환경 개선,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재취업 특별법’ 추진 등에 힘썼고 노인과 고아의 복지문제에 특히 주력했다고 기억한다.

1983년 여성계의 오랜 염원이던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됐습니다.

특히 청사 마련에 고문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여성 지위가 올라가야 나라가 발전하니 여성 활동을 도울 특수기관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내 말을 잘 들어준 셈이야. 같은 당 여성 의원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박수 치며 참 좋아했어. 여당 남자의원들도 적극 환영하고 밀어줘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순조로웠고. 문제는 개발원을 지을 부지였어. 현재 개발원(현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 땅(서울 은평구)이 원래 (국립)보건원 땅이어서 보건원 반대

가 극심했거든. 마침 내가 보사부 장관이어서 산하 기관인 보건원과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경기도에 땅 만 평을 사서 거기에 개발원을 지을 뻔했어. 당시 초대 여성개발원장으로 내정된 김영정 선생이 내 집무실로 찾아와 “경기도로 여성개발원이 가면 실력 있는 연구자를 확보할 수 없다. 무조건 서울 시내에 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지. 내 욕심으론 그것도 부족하긴 했지.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여성이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기에 그만큼 여성개발원이 중요했거든.

여성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인권이나 복지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먼저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해. 그래야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여성들이 눈치를 보고 병어리 노릇을 하면 안 되지.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야. 여성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 때지. 얼마나 많은 여성 인재들이 배출됐어? 국회의원, 장관 경험 있는 여성들이 몇 명이야? 아직도 다들 우리 사회와 나라 변혁을 할 수 있는 젊은 피, 젊은 피지. 다들 열심히 활동하자고.

구순의 이 대선배의 심장은 아직도 뜨거운 피로 요동치고 있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여성의정〉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닦아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온 여러분!
2016년 〈여성의정〉과 함께 힘차게 뛰시다. 파이팅!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양성평등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여성의정〉과 함께
우리 사회 양성평등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명선

〈여성의정〉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의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와
정치문화 변혁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윤원호

〈여성의정〉이 성평등 사회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성평등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여성의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정문자

여성 참여를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는 전문매체
〈여성의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김성옥

여성정치 세력화에 앞장서온 〈여성의정〉 창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방림

진정한 남녀동수 정치시대를 열어가는
〈여성의정〉의 창간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이끌어갈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여성의정〉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한미영

정치문화 개혁은 여성의 동등한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이끌 〈여성의정〉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소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삼화

46명이 총 2688건 발의, 1인 평균 58.4건 꼴

입법안 100건 넘게 대표 발의한 여성 의원 7명,
50건 넘는 경우도 17명에 달해

2016년 1월 8일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의원은 총 46명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대표로 발의한 건수는 제19대 개정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모두 포함해 총 2688건이다. 1인 평균 58.4건인 셈이다. 평균 통과 건수는 15.6건.

이 중 100건 넘게 대표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명희·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민희·이연주·김상희·서영교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 밖에도 50건 넘게 대표 발의한 의원도 1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 법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의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소관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많다. '대안반영 폐기'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원안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안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순히 대표 발의한 건수로 보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146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는 총 52건에 달한다.

윤명희 의원은 농업인 비례대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다.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

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가결되기도 했다. 또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해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한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총 138건을 대표 발의, 3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서울 등 도심지에서 일어났던 지반 침하, 소위 '싱크홀'과 관련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수정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발의 건수도 130건에 이른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50건이 수정가결과 대안반영 폐기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미국으로 입양됐던 아동이 양부의 학대와 폭력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다. 국내 입양아의 경우에만 해당했던 사후관리를 국외입양 아동에게까지 확대한 점이 의미 있다. 또 많은 논란을 낳았던 공공산후조리원



1



2



3



4



5



6



7

1- 여성 의원 중 가장 많은 146건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2- 총 138건을 대표 발의, '싱크홀'과 관련한 법안을 포함해 35건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3- 대표 발의한 130건 중,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50건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4- 119건 대표 발의 법안 중 이른바 'JYJ법' 등 38건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5- 111건을 대표 발의, 총 27건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 6- 109건을 대표 발의, 31건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7- 103건 대표 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19건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 제공, 각 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염전노예, 싱크홀, 입양아 폭행치사, JYJ, 사랑이 사건 등 사회적 반향 법안에 적극 반영해 발의 150건 육박한 법안 대표 발의, 3분의 1 이상 통과시킨 의원도 있어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대안반영 폐기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모두 119건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JYJ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안반영 폐기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대형 연예기획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같은 당 이연주 의원의 경우도 총 111건을 대표 발의해서 27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자동차 연비를 과대 표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같은 당 소속 김상희 의원도 10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31건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던 건설업체가 1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논란과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103건을 대표로 발의해 19건이 통과됐다. 이 중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

록법 개정안'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미혼부 혼자서는 친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던 기존 절차를 개정해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대표 발의 건수는 72건에 그쳤지만 그중 38건이 통과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결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가 표시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통과는 문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들이 훨씬 많아 의원들의 실적 쌓기 위주의 법안 발의에 대해 꼬집는 목소리들도 있다. 특히 여야 대결 구도와 몇몇 쟁점 법안 처리에 가려진 여성·아동 및 소외계층 관련 법안들의 자동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주아 기자

최대 성과는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속히 통과돼야

성폭력친고죄 전면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정
등
19대 여성가족위원회
의미 있는 성과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3년째 계류 중 “안타까워”

“19대 여성가족위원회의 최대 성과를 꼽자면 단연 성폭력 친고죄의 전면 폐지다. 지난 2012년 7월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낸 첫 대표 발의 법안이 바로 형법 개정안, 즉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법안’이다. 친고죄 조항이 살아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으로 6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사실 법사위도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낸 당인데 그렇게 소극적이면 되느냐’ ‘계속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꼽는 19대 국회 여가위의 주요 성과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20주년에 맞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개념 전환하는 한편, 성평등을 위한 정책 심의조정분과위를 설치한 일,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일 등을 꼽았다.

그는 19대 국회 여가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여가위 상반기엔 김상희 위원장이, 하반기엔 내가 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법’이 2,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안타깝다. 이 법안은 성차별과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 절차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데,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좀 더 커지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과제다. 여가부의 한해 예산은 6531억원으로 타 부처에서는 실국 규모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중 여성정책이 25%, 청소년 정책이 33%, 가족정책이 39%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성정책, 즉 성평등을 위한 정책분야 예산도 좀 더 확보돼야 한다.”

유 위원장은 1995년 지방의원(광명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7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4년간 지역(서울



유승희 국회 여가위원장은 당 여성위원장 시절 ‘기초의원 여성공천 30% 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당헌을 제정하는 등 성평등 당을 만드는 데 앞서고 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을 독려하기 위해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성북갑)을 닦아 이번 국회에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선배들로부터 “정치란 힘센 줄에 서지 않으면 힘들 텐데, 맨날 ‘여성’ 원칙과 소신만 고집하면 되겠느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들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이 장기적으론 이기는 힘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그의 소신은 맞아떨어졌다. 지난해 2월 여성 당원 50% 이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성평등 당헌으로 진행된 첫 전당대회에서 자력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당선돼 유일무이한 당의 여성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공영방송 관련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일관해 ‘싸움닭’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싸움닭’이란 별명? 사실 편하지만은 않다. 어느 여성 정치인이 ‘백조’가 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성’을 대표해 싸워야 할 것이 훨씬 많기에 싸움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별명이 일종의 훈장 같다고 생각한다.(웃음)”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힐러리 클린턴과 아웅산 수치, 세계 정치 지형도 바꿀까

하정민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dew@donga.com

» 힐러리, 클린턴재단 운영 자금, 부부 대통령 논란, 고령 등의 '산' 넘어야
“실패하면 뭐 어쩐가.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된다” 소신으로 일관
» 수치, 평범한 중산층 주부의 안락한 삶 포기 '민주화의 꽃'으로 투쟁 전면에
“대통령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 대통령 위의 존재 되겠다” 발언 논란도

힐러리 클린턴(69) 전 미국 국무장관과 아웅산 수치(71) 미얀마 집권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대표. 2016년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정치인이다. 두 사람은 국적, 인종, 성장 배경, 정치 역경 등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여성이고, 권력의 정점에서 있거나 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할리우드 배우 못지않은 인지도와 유명세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는 미국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미얀마와의 협력이 필수다. 지난 수십 년간 미얀마 군부독재에 반대해 온 미국이 각종 경제·군사 제재를 가하자 미얀마는 그 반발로 노골적인 친중 외교를 펼쳐왔다. 하지만 2011년 12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찾아 수치와 면담하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변혁이 찾아왔다. 1년 후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이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재가 풀렸다. 이는 2015년 11월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총선 압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위기가 닥칠수록 강해지는 힐러리

2009년부터 4년간 미 국무장관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이력은 대선 후보 힐러리의 주가를 높이는 일등공신이다. 2012년 9월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한 4명의 미국 공무원이 무장괴한들에게 피살된 소위 '벵가지 사태'는 한때 힐러리의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최대 악재였지만 그는 2015년 10월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

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벵가지 사태는 9·11 테러로 이미 최강 대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미국인에게 또다시 치욕을 안긴 사건이었다. 미국 대사가 삼엄한 경비까지 뚫고 들어온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됐으니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대사의 직속 상관이자 미국 최고 외교관인 국무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었다. 힐러리를 잡을 카드에 혈안이 된 공화당은 '청문회에서 힐러리를 몽개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청문회에 나온 공화당 의원들의 질의는 날카롭거나 매섭지 못했다. 수차례 반복된 식상한 질문이 이어졌고 공화당 의원 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되지 못해 중구난방식 질문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 전 미국에 생중계됐다.

반면 힐러리는 청문회 내내 침착하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웅산 수치의 성공과 미얀마의 민주화는 '국무장관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준비된 미국 대통령'임을 가장 확실하게 선전할 수 있는 도구다. 수치에게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든든한 지원과 원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진은 2011년 12월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가 미얀마를 방문해 수치와 만나는 장면. 사진 출처, 연합뉴스

논리정연하게 공화당 공격에 대처했다.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미국이 해당 지역에 외교관을 보내지 않으면 그 순간 미국의 힘은 약화된다.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력 저하냐? 또 사망한 대사는 자발적으로 위험지역 리비아에 갔으며, 국무장관으로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모든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특히 힐러리가 “워싱턴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당신네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외교의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협에 대해 논하느냐”고 일갈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할 말을 잃었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힐러리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폭스뉴스와 같은 친 공화당 보수 언론조차 “그가 대통령처럼 보였다(She looked presidential)” “품격 있고 위엄이 넘쳤다(stately)”고 호평했다.

힐러리의 과제

힐러리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우선 '평

범한 미국인의 대변자'를 자처한 것과 정반대인 그의 화려한 삶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많은 미국인에게 거부감을 안긴다. 우선 한 시간에 최소 1억~2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그와 남편 빌 클린턴의 고액 강연 및 이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가 문제다. 힐러리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5개월간 두 부부가 강연으로 번 돈만 2500만 달러(약 29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클린턴 부부의 재산은 아니지만 빌 클린턴이 만든 자선단체 클린턴재단의 운영자금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의 부가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 지적도 있다. 재단 기부금에 세계 각국 독재자와 부패 기업인, 인권 탄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루나이 정부의 돈 등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즉 각국 유력인사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 클린턴재단에 많은 돈을 냈으며, 클린턴재단 역시 이를 사

실상의 힐러리의 대선 캠페인 운용비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힐러리가 “르윈스키 스캔들 소송비로 백악관을 떠날 때 빚더미였고 이후 재산은 우리 둘이 열심히 번 것”이라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고달픈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란 비판만 커졌다.

일종의 대통령 세습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도 여전하다.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부시가 차례로 대통령을 역임한 와중에 힐러리까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클린턴과 부시가의 세습 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대선에서 이겨 2017년 1월 공식 취임한다고 가정할 때 만 70세인 그의 다소 많은 나이도 문제다. 그는 국무장관 재직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아직도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힘든 결정의 기로에 설 때면 늘 도전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기로 한다. 실패하면 뭐 어쩐가.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된다.” 힐러리가 소개한 자신의 좌

우명이다. 그는 과연 남은 기간 여러 비판과 우려를 잠재우고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미얀마 최고 권력자가 된 아웅산 수치

2015년 11월 8일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해 1962년부터 53년간 이어진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미얀마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표. 그의 인생 역정은 힐러리 클린턴과 판이하게 다르다. 힐러리가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를 제외하면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더 높이 더 멀리'를 실현한 것과 달리 수치는 최정점에서 출발했다가 바닥까지 추락한 뒤 다시 최정점에 올랐다.

수치는 1945년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에서 독립운동 영웅 아웅산 장군과 외교관 킨 치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독립 미얀마의 유력한 초대 총리였던 그의 부친은 그가 불과 두 살이던 1947년 정적의 손에 암살당해 1년 후 미얀마 독립을 보지 못했다. 다만 그의 어머니는 독립 미얀마의 인도 대사를 지내는 등 여전히 미얀마 유력인사로 군림했다.

어머니를 따라 간 인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치는 1964년 영국 옥스퍼드대에 입학해 철학과 정치학 등을 공부한다. 이곳에서 1살 연하 동급생 마이클 아리스(1946~1999)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1972년 결혼한다. 수치는 두 아들 알렉산더(43)와 김(38)을 낳고 티베트 불교 전문가인 학자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가정부를 두지 않고 몸소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온갖 가사일을 직접 했다.

매년 두 아이의 생일파티 또한 동네 어떤 엄마보다 성대하게 열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열혈 맘'이었다.

남편의 임종도 거부하며 독재에 맞서

평범한 영국 중산층 주부였던 수치의 삶은 1988년 초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 간호를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송두리째 바뀐다. 한때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동료였던 네 윈 장군은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독재자로 변모해 미얀마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1988년 8월 8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숨진 소위 '8888' 항쟁이 일어나자 수치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얀마 국민은 건국 영웅인 아웅산의 딸 수치를 원했고 43세의 수치는 사랑하는 가족과 평안한 삶을 뒤로한 채 본격 반독재 투쟁에 나선다. 같은 해 12월 비폭력 노선을 내건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입당했고 곧 미얀마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다.

투쟁가 수치의 원동력은 극기에 가까운 철저한 개인 희생, 불굴의 의지, 무한한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 1989년 7월 군부는 수치를 집에 가둔다. 당시만 해도 수치 본인을 포함해 그의 가족, 군부, 미얀마 국민 중이 가택연금이 무려 21년이 지난 2010년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미얀마를 떠나면 즉시 가택연금에서 풀어주겠다"는 군부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독재 타도를 외친다. NLD는 1990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80%를 차지하며 승리하지만 당시 군부는 일방적으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독재를 더 강화한다. 수치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을 독려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91

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힌다. 가택연금 중인 그가 수상 장소인 노르웨이에 갈 수 없어 당시 18세였던 큰아들 알렉산더가 대신 어머니의 수상 소감을 낭독했다.

그의 개인사는 매우 불행하다. 우선 1999년 남편 아리스가 암으로 숨진다. 그는 평생 부인의 글을 모아 책을 내고 미얀마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던 헌신적 반려자였다. 군부는 죽기 전 한 번만 부인을 보고 싶다고 미얀마 입국을 요청한 아리스의 방문을 불허하고 대신 수치에게 "영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라"고 종용한다. 수치는 이 제안을 거부한다. 한 번 미얀마를 떠나면 군부가 자신의 귀국을 영원히 막을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수치는 군부의 허락을 얻어 잠시 영국대사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옷을 입고 머리에 장미를 꽂은 후 죽어가는 배우자를 향해 작별을 고하는 동영상 찍는다. "이 힘든 투쟁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라며 수치가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남편이 죽은 후에야 남은 두 아들에게 전해진다.

두 아들의 삶도 무척 힘겨웠다. 어머니 수치와 헤어진 1988년 둘은 겨우 15살, 10살 소년이었다. 이들은 어머니의 몫까지 자신들을 돌봐주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엄마'를 만날 수 없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장남 알렉산더는 "가족 대신 정치를 택한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친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뒤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차남 김과의 사이는 매우 좋은 편이다. 수치는 가택연금 해제 직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남과의 재회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평안했다."

총선 압승으로 53년의 군부독재 끝내

1999년 남편의 사망 이후 수치는 일시적 가택연금 해제, 재구금, 투옥 등을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점점 커지자 결국 군부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고 민간정부 수립을 약속한다.

2010년 11월 드디어 수치의 가택연금이 풀렸다. 하지만 그가 이끈 NLD는 당시 실시된 총선에 불참한다. 군부가 형사 처벌자 출마 금지 조항을 만들어 수치의 입후보를 막았기 때문. 군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만든다. 이 역시 영국인과 결혼해 두 영국 국적 자녀를 둔 수치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때문에 그는 2011년 대선에서 퇴역 군인 출신의 민간인인 테인 세인의 대통령 취임을 지켜봐야 했다.

5년 후 드디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설 기회가 왔다. NLD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390석을 얻어 당당히 제1당이 됐을 뿐 아니라 단독 정부 수립에도 성공했다. 미얀마 헌법은 상원(224석)과 하원(440석)을 합친 전체 664석 중 25%인 166석을 군부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때문에 단독 집권을 하려면 나머지 498석 중 최소 67%를 얻어야 한다. 이에 선거 전에는 "아무리 수치가 전면에서 나선다 해도 NLD

의 압승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미얀마 국민은 NLD에 몰표를 던졌다. 1988년 귀국 후 27년 만에 수치가 현실 정치의 전면에서 나설 길이 열렸다.

수치의 과제

수치는 현재로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집권당 대표가 늦어도 2016년 3월 중에 실시될 대선에 나서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한 탓에 개헌도 힘들다.

하지만 수치는 이를 정면 돌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총선 압승 직후인 2015년 11월 10일 영국 BBC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 대통령 위의 존재가 되겠다"며 직책에 상관없이 자신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수렴청정인 이 조치가 헌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면 문제 없다"며 개의치 않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만만한 싱전 총리를 내세워 2004년부터 10년간 인도를 실질 통치해 온 소냐 간디 전 인도 국민회의당 대표의 예에서 보듯 그가 자신의 대리인을 NLD 후보로 내세우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전망한다. 군 최고사령관 출신이지만 수치를 오랫동안 보좌하며 국민 신망이 높은 틸 우(89) NLD 부의장이 유력하다고 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다.

이를 제외하고도 현실 정치인 수치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은 많다. 군부가 이번 총선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국방, 내무, 보안장관 등 행정 요직 지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사령관이 쥐고 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군부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하지만 무조건 독재 타도를 외쳤던 야당 시절과 달리 수치가 집권당 대표로서 능수능란한 설득과 타협 기술을 보여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가택연금 해제 후 지난 6년간 그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기인한다. 엘리트 출신인 그가 오랜 구금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바람에 서민 실정을 잘 모르고, 불교국 미얀마에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를 도외시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평생 반독재를 외쳤지만 정작 NLD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비판과 반론도 용인하지 않아 이 역시 독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명한 영국 언론인 저스틴 윈틀이 쓴 수치의 전기 『완벽한 인질』(2008)에 따르면 지인들조차도 종종 수치를 '거만하고 쌀쌀맞으며 고집이 세다. 혼자 도덕적인 체한다'고 비판한다. 미얀마 언론인 우 시투 아웅 민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치는 2014년 미얀마를 방문한 미 자동차업체 대표단에게 '사업 모델을 바꾸라'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을 불쑥 내렸고, 자신을 찾는 해외 유력인사에게 "나의 반대파와 손잡는 것은 무조건 악(惡)"이라는 다소도 식적인 발언도 종종 했다.

즉 미얀마 국민이 수치를 존경하는 건 분명하지만 정치인 수치의 능력에 의문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과연 그가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유능한 정치인 겸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정치인 수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가시작일지 모른다.

20대 총선, “공천할 여성 인재가 없다?”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여성 후보를 공천하고 싶어도 공천할 만한 여성 인재가 없다!”

“경쟁력이 있는 여성 후보만 있다면 기꺼이 공천하겠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 요구에 대해 정당의 공천 책임자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 정치권에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들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에? 아마도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여성대표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암울하다. 2014년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5.7%로 188개국 중 93위이다. 세계 여성 의원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여성 의원 비율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게 된 것도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적용한 국회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여성 후보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교호순번제 때문이다.

그 규정 덕분에 16대 국회에서 5.9%(지역구 2.2%)에 불과했던 여성 의원 비율이 17대 국회 13.0%(지역구 4.1%), 18대 국회 13.7%(지역구 5.7%), 19대 국회 15.7%(지역구 7.7%)로 부족하나마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의원의 비율은 평균 수준보다 낮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여성 의원의 비율은 더더욱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과거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여성 후보의 교호순번제가 채택되기까지 여성 정치인 및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여성 후보 50% 공천을 요구하고 설득함으로써 단결된 여성 연대의 힘을 증명했다.

따라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지역구 공천 확대를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범여성 연대의 결집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또 있다.

첫째, 총선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의 캠페인이나 압력으로는 여성대표성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능하다. 17대 총선 이후 여성 의

원 비율이 19대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7대 총선 이후 범여성연대의 단결된 힘과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대표성의 확대는 남성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아닌 여성들의 결집된 힘과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공천도 급한 남성들이 지역구의 여성공천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즉 범여성계 차원에서 20대 총선 관련 단기적 전략과 함께 지역구 여성 후보를 늘리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의 마련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교훈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시행착오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권고대로 2030년까지 남녀의 대표성과 지위가 50 대 50이 되도록 하려면, 한국 여성들의 범여성 연대 결집과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티테 법의 교훈

신율 명지대 교수

수치상으로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다. 많은 이들은 이런 얘기에 어리둥절해할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통계를 보면 르완다의 경우, 전체 의석 중 63.8%를 여성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조사 대상 190개국 중 86위다. 케냐나 말라위보다 하위에 랭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르완다가 전 세계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즉, 여성 의원의 숫자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참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역구 출신 여성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지역구를 통해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 이런 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대부분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여성 의원이 나오기 힘든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정치 생명이 유지된 다기보다는, 일종의 ‘위로부터의 선택’에 의해 정치생명이 좌



우되기 때문에, 그만큼 능동적인 정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이 용이하지 않고, 또 보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를 진폭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여성문제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올 경우에도, 유권자들의 호응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공천하

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랑스의 파리티테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2000년대 프랑스가 실시한 파리티테법은 ‘남녀동수 공천법’으로, 이런 과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과소대표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파리티테법을 실시하면서 동수공천법을 위반한 정당들에 소정의 벌금을 내게 했는데, 거대 정당들은 낙선의 두려움 때문에 기꺼이 벌금내는 것을 선택했다. 만일 프랑스가 좀 더 강력한 벌칙을 내세웠다면 거대 정당들의 파리티테법 무력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경우도 ‘동수 공천’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3분이 1’ 이상의 지역구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엄한 벌칙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 과소대표를 극복하는 것은 인권의 회복과 균형 잡힌 인권의식 형성의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는 것이다.

딸만 둘 가진 아버지로서, 그리고 35년 가까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좋은 세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진 명품도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관광' 집중 육성

테헤란로, IT 중심지로 만들 것

저는 2016년 올해에는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강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KTX, GTX 3개 노선, 위례~신사선, u-smartway 6개 광역교통 환승 시설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지하공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 8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가가치산업인 MICE와 관광을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한류스타 콘서트, 빛의 거리 조성 및 한류스타 포토존 설치 등 '젊은 세대 문화 중심', 삼성역·코엑스 일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계절별 C-페스티벌 개최 및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MICE, 비즈니스 중심', 압구정·청담동 일대는 K-Star Road, 패션쇼 및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등 '패션, 한류 중심',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류스타 게릴라·버스킹 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및 중국 은련카드와 공동 이벤트 추진 등 '푸드, 뷰티, 패션 중심'의 관광 명소로 특화시켜 강남구를 서울 5대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중심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테헤란로에 인접한 옛 역삼세

무서 일대에 TIPS타운이 개원했고, 네이버의 D2스타트업 팩토리, 구글코리아의 구글캠퍼스 등 현재까지 벤처기업 70개사가 입주했으며 올해엔 160여 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테헤란로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능가하는 스타트업 창조도시로서 IT업계의 새 중심지로 만들어 2017년까지 6000명 이상의 우수 인력 유입과 매년 20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신규 고용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명품 주거환경도시로 대표되는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압구정지구, 은마아파트, 대치구마을까지 총 55개 단지 4만 20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도시를 선도할 친환경·고품격 명품주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구룡마을을 비롯한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까지 잔존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주민들의 임대아파트 이주 지원과 명품 주거환경 개선에 조기에 이뤄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행정, 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일류도시 강남을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의 세계화 노력은 강남만의 발전이 아니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의 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 도시로

신계용 경기 과천시시장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주력
과천누리마추제, 시민 중심의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킬 것

2016년은 과천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2016년 시정 운영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시는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용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건축 인·허가 세무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롯데자산개발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 조성 과 도심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5개 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년간 장기 방치되어 있는 우정병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소규모 돌봄 나눔터를 조성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18개에서 20개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야간·시간제 근무로 인한 틈새 보육수요나 핵가족 시대의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SOS 안심보육 어린이집도 운영합니다. 청년층 취업문제 지원을 위해 구직자의 직무 체험 기회를 넓히고 우수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청년기업 우수 제품 공동판매장 설치, 운영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형 일자리 발굴, 여성 창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지역 활동 및 창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합니다. 과천 소재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과천 누리마추제는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관광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랫즈런파크 등 5개 기관과 함께 국제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학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창의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고, 교실 클린서비스 지원사업도 신설해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열린 시장실 운영,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직장 여성과의 만남, 육아 토크를 확대 실시하고,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은 민선 6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미래 발전 구성이 완성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심 재생의 롤모델로 중구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올 한 해도 '더 좋은 중구'를 위해 구민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심 재생의 롤 모델이 된 '대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올해에는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생동감 넘치는 창조 중구로 거듭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산 100년 향수길, 향촌동 수제화 골목 근대문화 예술거리, 경상감영공원 주변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구 전역이 균형 발



‘방천시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관광명소로 조성

‘1마을1특화 복지희망 만들기’ 사업 적극 전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된 '대구 근대골목'과 '방천시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김광석 길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방천스토리하우스 사업도 마무리하고,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으로 북성로를 장인마을로 변화시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 작은 도서관 활성화, '꿈드림' 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빈틈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과 동네 안전지킴이 '행복수호대' 운영, 범죄 예방형 환경디자인을 통한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 실시, 초등학교 등의 안전 취약지에 CCTV 신규 설치,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에코스쿨, 늘 푸른 어린이 환경교실 등의 운영으로 도심 속 녹색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매일문안제, 행복드림팀 3119 운영 등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마을1특화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정착시켜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며, 효사랑 실천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특화거리 조성 및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및 보건소 합동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우수 기업과 구민 우선 채용 MOU 체결, 2030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대골목투어와 마을기업을 연계해 관광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8만 구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제시장’의 무대, 이젠 명품 경제도시로 도약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여성정치 전문 매체인 《여성의정》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치 발전과 정치문화 변혁을 위해 여성정치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여성들을 위해 힘차게 함께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대교 도개, 부평깡통시장 야시장,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구인 부산 중구는 희망찬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한층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행복 수놓기 사업 특화에 더욱 박차

용두산·자갈치 함께 묶어 전국적 관광 명소로 개발

병(丙)은 붉은색을, 신(申)은 원숭이를 상징하며, 이 붉은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신년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부산 중구 새해 예산 1331억 5000만원으로 ▷함께하고 나누는 건강복지도시 ▷풍요롭고 활기찬 명품 경제도시 ▷즐겁고 열정적인 문화·교육도시 ▷품격 있고 안전한 맞춤 창조도시 ▷구민이 주인이 되는 공감행정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의 특화 사업인 소

외계층 지원을 위해 '구청 직원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지역 내 민간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 수놓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후원자는 연평균 300여 명인데, 이중 공무원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 아동 공부방 만들기, 저소득가정 정기후원금 지원, 희망보급자리 집수리 사업, 조손가정 행복찾기 프로그램 운영 등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애환과 향수가 녹아 있는 40계단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작가와 동아리,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아트형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자갈치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더욱 관광 자원화하고 2016년 도시 활력 증진 사업으로 선정된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거리 조성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서의 위용을 되살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중구, 희망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최우선 과제로 전력질주

김수영 서울양천구청장

만민공동회, 현장구청장실, 주민과의 대화 등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를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이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 곳곳에 공감의 씨앗을 뿌린 해였다면, 2016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을 주민과 함께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 복지, 안전,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건강 등 구정 운영 5대



교육, 복지, 안전,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
구정 운영 5대 분야
핵심 과제 삼아 역량 집중

분야를 핵심 과제로 삼아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임 초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공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

던 ‘양천형 찾아가는 방문 복지’를 전체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 비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내겠다는 이 사업을 통해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전문 간호사가 각 지역에 전담배치 되었고, 어려운 사례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 다양한 사례들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건강요료 배달원과 가스검침원 등 1700여 명을 ‘이웃살피미’로 위촉하여,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구정을 꾸려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2015년, 그중에서도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여성 구청장이기에 더욱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이면서 ‘엄마’이기에 챙길 수 있는 구정 운영을 통해 양천구에서 실현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큰 기쁨이며, 정치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선배로서 여성 정치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믿습니다.

2016년 올해 더 많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미래전략 ‘나비플랜’으로 서울의 지도 바뀌나갈 것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

새해에도 따뜻한 엄마 마음으로 빛이 나는 분야에 빛을 내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엄마로서 야무지게 해야 하는 사업들을 꼽아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초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새해 세출예산의 4분의 1을 보육·교육 분야에 투입할 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곳을 추가로 개원해 54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화장실과 운동장 등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 중 소외된 부분 집중 개선
아이들 미래 위해
새해 세출예산의 4분의 1
보육·교육에 투입

부터 개선할 것입니다. 보육으로 지친 할머니·할아버지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것부터,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어깨를 펴주는 ‘아버지센터’까지 45만 서초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동네 분위기도 따뜻하고 안락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반주택 지역에 무인택배, 야간순찰, 안심귀가, 공구은행, 공동육아 등 신개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딧불센터’, 쇼핑과 육아를 결합할 수 있는 공

동육아센터 ‘키움’ 등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주목했던 서리풀페스티벌은 10만여 명이 참여한 큰 축제였습니다. 서초의 문화적 역량을 전국에 알려 국가행사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서초의 인프라와 문화적 상상력이 결합한 최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풍부한 물적자원과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쇼핑관광도 연계해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초의 미래 전략인 ‘나비플랜’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서초구의 지도가 나비 모양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초와 서울의 지도를 바꿔놓을 ‘나비플랜’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적 상상력’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보사 부지 터널 착공, 박원순 서울 시장과 체결한 양재R&D지구 MOU 등이 이와 관련한 움직임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터미널 이전, 양재R&D 클러스터 육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올 날것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이미 99℃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1℃만 올리면, 우리 서초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막힌 곳은 뚫고, 묶인 곳은 풀어, 모두가 살기 좋은 서초, 누구나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자연·풍요·이웃·행정을 5대 키워드로 구정 발전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민관 합심 거버넌스 체제로
행정 특화

전국 최고의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힘쓸 것

여성의 참여로 더 평등하고 더 참여적 인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여성의정 회원들께서 한마음으로 만드는 《여성의정》창간을 축하합니다.

제헌 국회에서 1명으로 시작한 여성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47명으로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정계 진출 요구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야는 올 4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의 중앙집권화나 남성 중심적 정당 문화가 팽배한 데 기인한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자원이 부족한 면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한국여성의정이 앞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지원,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민선단체장 체제의 지방자치 2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특색 있는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 등의 성과를 낸 것이 다수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확충과 개선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회원 여러분의 노력은 정치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의 디딤돌을 튼실하게 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민관이 합심하여 거버넌스 체제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부

평 전략을 세워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도시공간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의 64%를 넘게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로 사업하기에 팍팍하지만 가계부를 작성하며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하듯 구의 재정살림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 갈 것입니다.

취임 이후 해온 현행행정, 동네에서 숙박하며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도 부평형 행정 스타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 자연, 풍요, 이웃 그리고 행정을 키워드로 한 5대 부문별 전략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구정 전반의 반석을 다지고, 안심, 경제, 배움, 복지 그리고 생태, 미래, 행정 등의 7대 역점 방향으로 지금까지 가꾼 성과 위에서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정 회원 여러분!

슬기로운과 재주를 상징하는 원숭이띠 삼백예순다섯 날의 희망 꽃씨를 정성으로 가꾸어 갑시다.

한국여성의정 출범 3년 차의 시기에 맞는 올해에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사상공업지역을 첨단 스마트 시티로, 부산대표도서관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송숙희 부산사상구청장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중

도심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해 살기 좋은 사상으로

먼저 여성정치 전문 매체인 《여성의정》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상구는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을 끼고, 부산 도심 최대의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이 소재해 있는 산업과 자연의 조화 속에 삶이 풍요로운 강변도시로,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제가 민선5기 사상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이라는 구정 목표와 함께 '생활이 풍요로운 첨단산업도시 사상',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사상', '삶이 향기로운 문화·복지도시 사상', '미래의 꿈을 가꾸는 교육·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24만 주민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결과,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 스마트시

티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산 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경쟁력의 척도이자 주민들의 중요한 삶의 지표인 '건강과 문화 증진'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치열한 유치경쟁을 뚫고 유치한 '부산대표도서관'을 부산의 지식허브센터이자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건립하는 한편,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등 '문화융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 대표 복지시책인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사업, 도심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차별화된 학력 신장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환경 및 교육 관련 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사상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신나는 사상'을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올해도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전국 여성 기초단체장 9명 중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의 새해 포부는 구정 사정상 실리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여성30% 공천은 양성평등 정치의 마지노선... 불발되면 유권자가 심판할 것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문자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김성옥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방림 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 소장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를 이끄는 여성단체장들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한국여성정의 사무실에서 《여성의정》창간 특집으로 열린 좌담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가 좌담회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앞서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를 슬로건으로 결의대회를 갖고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 신속 통과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 각 정당 공천관리위, 공천심사위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이처럼 제도화가 미흡하면 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불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의 여



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장

선거구 획정 불발 등 제도 미흡할수록 여성에게 불리 여성단체 연대 비활성화 성찰해야

성 후보 지원전략이 궁극하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협에선 지난해 3·8 한국여성대회 때 포럼을 통해 남녀 동수 국회를 어떻게 이룰까 논의했다. 7월 이후부터는 지역구 여성 30% 법제화를 한층 강력하게 촉구, 1만여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에 각 당 대표를 만나 1만 명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두이긴 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민련(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서 지역구 여성 30% 법제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5년 상반기에 내부에 총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다른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20대 총선 여성 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활동을 펴왔다. 여름엔 19개 여성단체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을 만들어 제시했다. 조만간 20대 국회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장: YWCA에선 2016년 중점 과제로 탈핵과 성평등 운동을 선택했다. 총선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중점 과제 관련 정책의 의제화를 각 정당에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여성 후보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단체별 여성 후보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기에 연대를 통해



20대 총선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좌담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여성단체장들. 왼쪽부터 김성옥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차경애 YWCA 회장, 정문자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장, 김방림 여성정치연맹 총재,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총선 출마 여성 후보가 30% 이상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우리 연맹엔 지회가 80개인데, 이들 지회가 다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연다. 이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정당에서 지역구에 여성 30% 공천을 한다 해도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자금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우리 단체는 1987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촉구해왔다. 이후 여러 여성단체와 연대해 촉구한 결과 지역구 여성 30% 공천 권고와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의무화까지 왔

지만 선거 때마다 여성 30% 지역구 공천이 안되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 앞서 3당 대표와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양성평등 선진국으로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제안서에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 의무조항 법제화와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남성) 후보 등록도 무효화하는 강제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첨부했다.

김은주: 여성계 뜻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해 지역구 여성 30% 할당 의무화가 실현된다면, 이 30%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각 단체가 지원하는 여성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경애: 그러나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그 후보에게 여성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탈핵, 성평등, 생명, 평화, 평등 등의 가치에 함께 공감하면서 지역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정말 ‘여성’ 후보로서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김성옥: 각각 다른 입장에 있는 여성일지라도 양성평등 의식을 계몽하면 다 공감할 것이다. 때문에 양성평등 의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여성이어야 후보로 추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다.

정문자: 우리 단체 차원에선 여성 후보를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직접 사업은 하지 않는다. 회원 단체별로 좋은 여성 후보 또는 성평등 후보를 자유롭게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할 뿐이다. 여성이라고

다 젠더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여성이 불평등한 권력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개선하고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진정한 여성 후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성평등 사회를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방림: 우린 포럼을 할 때마다 여성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가 상실돼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그동안 얼마나 남성정치와 차별화되는 여성정치를 보여주었는가. 얼마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여성들이 보여주었는가.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치혁신, 또한 자생적인 여성정치 참여를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성정치 세력화를 과연 이루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부정적인 이면도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가 단순히 여성 의원 비율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 변혁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최금숙: 여성 후보는 국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좀 더 구체화해 이를 법안으로 입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여성단체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성단체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여성 대표성을 가진 공약 제시도 중요하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성 일자리가 확대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어야 할 테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조성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도 필요하다.



차경애 YWCA 연합회장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 탈핵·성평등·평화 등 가치에 공감해야 '여성' 대변

또 하나, 남성 후보의 경우 전과 경력이 있어도 공천에 통과되는데 여성은 절대 그런 경력의 후보가 없었으면 한다.

김은주: 지금까지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제도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던 것이 여성정치 세력화 운동의 전통이었는데, 2015년 현재를 보면 여성 연대가 그전처럼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총선을 향한 총선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그 이후엔 여성 후보를 공동 추천하는 연대는 약했던 게 사실이다. 단지 제도 개혁 연대만 지속돼 왔다. 그나마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한 여성연대는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다.

차경애: 같은 기준에 맞추어 연대해야 하는데 단체별 특성에 따른 기준 때문에 하나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면 서로 양보하

면서 모여야 연대가 꾸러지고, 그래야 여성 후보도 더 많이 추천하고 제도 개혁도 한층 더 추진되지 않을까. 때문에 각 단체가 가진 특성만 너무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문자: 2015년 7월에 범여성계 연대를 꾸리려 했지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인 입장 차이가 생겨 범여성계는 무산됐다. 그래서 입장이 맞는 단체들과 여성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입장이 나뉘어 있듯이 여성계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문제인데, 지역구 30% 여성할당과 쌍두마차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여성정치가 확대될 것이다. 다행히 (2015년 12월) 15일 범여성계가 모여 공통분모를 찾음으로써 연대의 실마리를 찾았다. 20대 국회 여성 30% 달성을 위해 각당이 지역구 여성 30% 할당 원칙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김성옥: 각 단체마다 세부적 목표는 좀 다르다. 가령 우리 단체의 경우,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국민 정서상 또 정치 현황상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엔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엔 여성 당선율이 30%에 이르게 하자는 여성계 주장에는 공감하기에 15일 행사 준비단체가 됐고 범여성계가 함께 한다는 시작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금숙: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례대표 여성 60% 할당을 약속했고, 여야 양당이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여성 비례

대표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여성연대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후보들을 공동 추천할 수 있는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한다.

김방림: 여성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성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나와 과거에 접근할 수도 없었던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에게 바람직한 여성리더십, 여성정치 확대의 당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책을 맡은 여성 정치인들이 과연 여성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후배 양성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자성 없이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든 것은 물론 당면한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문자: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성을 위한 성평등 국회가 돼야 하지 않나. 2004년 총선 당시 여성단체가 연대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결성, 여성 후보 101인 명단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명단은 17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18, 19대 총선에서도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 명단 발표는 여성단체가 해당 여성 후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간 여성들이 정말 여성을 위해 일했느냐 하는 면에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후엔 여성연합이 전국 단위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회원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후보 추천은 이처럼 늘 고민되는 영역이다.



김방림 여성정치연맹 총재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원 비율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돼... 얼마나 정치문화 변혁에 기여했는지 반성해야

우리가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비례대표'란 장애인,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자리이다. 국민은 점차 다양해지는데 국회는 의사, 변호사, 기업인 위주로 별로 다양한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수자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국회가 되길 바라고 때문이다.

김은주: 앞으로 총선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한 총선여성연대 결성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달라.

차경애: 자기 단체 수준으로 보면 이에 못 미치는 후보도 들어갈 수 있는데, 후보자 명단 발표에 여성계가 함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 제도 개선은 (여성연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김성옥-정문자: 임시국회가 2월에 있으니 그건 가능할 것도 같다. 무엇보다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

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정문자: 제도 개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직선거 30% 여성할당을 하지 않으면 벌칙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각당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채우는지 계속 주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심위 구성에 여성이 50% 들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김방림: 여성 후보가 없다는데 왜 없나? 다 배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밑에서부터 사람을 키우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안 지키는 지역의 경우 선관위에서 다른 후보 등록까지 무효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김은주: 가장 큰 문제는, 각 정당에서 상향식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확정적이라는 거다. 지역구 공천 여성 30% 할당을 의무화한 후엔 경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큰 관건이다.

김방림: 지난 10년간 여성정치 참여는 확대됐지만 먼저 정치권에 진출한 여성들의 여성정치 실현은 실패한 감이 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담보 내지는 후퇴인데, 여성들이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타개하려면 세력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세력화의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무엇보다 왜 여성연대가 번번이 불발되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기성 정치권의 여야 이해관계가 여성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큰 목표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정문자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금은 여성정치의 위기 여성진출, 19대보다 후퇴 가능성 국회의원 특권 대폭 없애고 비례대표비율 크게 높일 필요 있어

차경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시 여성에게 15~25% 정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다른 당에도 이런 조치가 계속 확대돼야 하고 가산점 비율 역시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최금숙: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각 당마다 여성들의 지역구 출마 타진이 활발하다. 한편으론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들 중엔 만약 공천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는 결심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김성옥: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당에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또 하나, 이번엔 총선 후 각 당에 여성계가 아쉬운 점을 당당히 말해서 여성계의 입장을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최금숙: 새로 생기는 지역구를 여성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으로 하는 것은 여성 후보를 늘릴 좋은 방법이므로 여성

계가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김방림: 그걸 강력히 주장하려면 정당 내 힘 있는 여성들이 구심점이 돼 강한 목소리를 꼭 내줘야 한다. 새로 늘어나는 지역은 남성 후보를 지체해 공천하는 관행이 있다.

정문자: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뿐만 아니라 분구 지역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고, 각 당 우세 지역에 여성을 우선 혹은 전략공천하도록 당을 압박해야 한다. 사실 지금은 여성정치의 위기다. 여성 진출이 19대 때보다 담보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우리 여성계에 아주 아픈 상처가 될 것이다.

김은주: 여성 대표성을 한층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성옥: 지금 우리가 좌담회를 통해 제안하고 얘기한 것을 다 법제화해야 한다. 나아가 각 정당에선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여성을 키워줄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당의(여성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여성들이 정말 확실히 당선되고 있는가 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차경애: 보다 근본적으론 의정활동을 잘한 여성 정치인을 우리 여성단체들도 자꾸 홍보해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김성옥: 여러 단체에서 우수 의정활동 국회의원에게 상을 주는데, 이런 상을 여



김성옥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정당 양성 프로그램으로 여성 정치인 얼마나 배출했나 여성단체가 연대해 의정 모니터 링하고 우수 의원 시상하자

성단체가 다 연대해 남녀 의원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 잣대를 가지고 엄밀히 심사해 공동으로 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후에 본격적으로 범여성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20대 국회 초반부터 철저히 여성계가 국회를 지켜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김방림: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선 여성정치 세력화가 답이라고 하셨다. 때문 여야 지도부에 계속 무엇인가를 달라고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의 여야 지도부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더 이상 여성들이 기존 정치논리에 매몰돼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

여성단체가 연대해 20대 총선에선 여성 후보들에게 여성정치 참여의 가치와 목표, 의무와 책임, 실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국회 진입 후 의정활동 내내 우

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정문자: 지역구 대비례대표 비율이 2대 1이 돼야 다양한 계층이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펴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국회의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국민이 크게 반발하는데, 국회의원의 기존 특권을 줄이면 이 반발 역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는 30년 전 규모여서 국회의원 1인이 관리할 주민이 14만 명이 넘어간다. 국회의원 1인이 최대한 10만 명 정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여성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 그 면에선 비례대표 확대가 답이다.

차경애: 우리는(국회의원을) 뽑기만 하지 당선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상설 기구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성옥: 선거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현 선거제도와 선거문화를 대폭 개선해야 여성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기관은 다수 있지만 여성정책이나 젠더 평가를 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이참에 범여성계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과 정당까지 '여성의 눈'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한다.

정문자: 당선된 여성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해 당선됐으니 여성을 위해 먼저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여성 의원들에게 여성과 성평등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게 책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남녀동수 국회 만들기 고민... 지역구 30% 여성공천 서명운동 성범죄 후보 공천하는 정당 있는지 눈 크게 뜨고 감시할 것

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여성단체의 책무다. 그래야 여성의 원의 수준도 당연히 향상될 것이다.

차경애: 우린 이런 여성 의원을 원한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이 부딪치면 공공의 선을 먼저 생각하고, 계파와 당의 이해가 부딪칠 때 당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며, 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부딪칠 때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 말이다.

정문자: 각 당 공천 기준에 대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 관련 범죄에 관련된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후보에서 추방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이 국회의원 성범죄 만행을 쫓아 규탄하기에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다음으론 각 당 대표들에게 2012년 열린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의결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7개 조항을 엄수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도 합의한 이들

조항엔 의회 여성 수를 늘리고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며 성평등 입법 및 정책을 강화할 것과 의회 업무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성인지적 인프라 구축 및 의회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평등국회는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남녀 의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정당과 여성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성옥: 각 당 지도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조성되도록 선도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최금숙: 새로운 생각을 가진 여성들, 소프트한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들 여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 제도는 결국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은주: 2시간여의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참석한 여성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오늘 이 시점부터 여성단체가 20대 총선 여성 진출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선거 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여성단체의 공동 모니터링과 이를 실현할 연대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20대 총선에선 성범죄에 관련된 후보만은 그 어느 정당도 절대 공천하지 말 것을 우리 여성단체들은 엄중히 각 당에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성계 총선 좌담회를 마친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전직 여성 의원들, 어떻게 지내세요?

유일한상 수상, 사재 털어 간호사 격려할 국제적 상 마련

김모임 11대 국회의원



11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모임 전 의원(당시 민주정의당)의 근황은 종종 훈훈한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2014년 모교인 연세대 간호대학에 26억원을 기부했고, 올해 1월에는 ‘유일한상’을 수상했다. 유일한상은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인사를 추천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김모임 전 의원은 국민보건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또 전 재산을 국내외 보건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기부하는 등 국민의 귀감이 됐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김 전 의원은 “유일한상의 상금으로

받은 1억원과 모아둔 재산을 조금 더 보태 내 이름이 들어간 국제적 어워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간호협회(ICN)에 기부금을 출연, 2년에 한 번씩 세계 140여 개국의 간호사 중 인류 건강에 기여한 사람을 찾아 시상한다. 이기금은 김모임 전 의원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연세대 김의숙 박사를 후견인으로 유기 지명했다. 이를 통해 2016년 6월쯤 첫 수상자가 나올 전망이다.

각계각층 지식인 모인 K-포럼 발족...전문 지식의 사회환원 방법 모색 중

임진출 15·16대 국회의원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진출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현재 K-포럼의

대표를 맡아 현직 의원 시절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K-포럼’은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로, 지난해 12월 3일 1차 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K-포럼은 임 전 의원의 아이디어로 주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 전 의원은 “현재 K-포럼은 정책 아이디어, 인적 자원, 문화·예술·체육, 다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각 분과 소속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나아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양텔레비전 프로듀서 등 언론인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최근 “남북통일이 갑자기 되었을 경우 남북한의 언어 장벽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으론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세기 선덕리더십 여성아카데미 등에서 강의를 통해 지역 여성들에게 자금

심 고취와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현역 때 한·일의원연맹 위원으로, 국회 여성분과 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중형무진 활약하던 시절 못지않게 활동 중”이라며 근황을 전해왔다.

역사에 묻힌 여성 독립운동가들 세상 빛 보게 하고

김희선 16·17대 국회의원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 중’이다. 국회에서 제도정치를 펼쳤다면, 사회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 또한 ‘현실정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친 후 여러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던 중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왜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유관순밖에 모르지?”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그분이 권하는 책과 자료들을 접하면서, 분노가 치밀었고 부끄러워졌다. 여태껏 잘 모르고 있었던, 독립운동사 속 여성들을 만나며 눈물이 났다. 잘 모르는 분야였기에 사회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의견을 경청했다. 대부분 ‘지금도 늦었지

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그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이 사업회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자료를 연구·분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여고생들의 독립운동 플래시몹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을 8년이나 도왔던 여성 독립운동가인 이화림 선생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기획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면서 “선생은 독립운동당시에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만 투쟁했을 뿐인데 이후 이념논쟁에 휘말리며 역사에 묻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학술활동 지원, 출판사업, 여성독립운동 스토리텔러 양성, 청소년을 위한 여성 독립운동 교육 등도 더불어 펼쳐나갈 계획이다.

소임 다했으니 정치권과 이별 화가로 변신해 개인전 5차례나

손봉숙 17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봉숙 전 의원(당시 민주당)의 변신은 의외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 깨끗한 태도를 유지하던 손 전 의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앞치마를 두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활발히 보내고 있다. 벌써 개인전을 연 것만 해도 5차례나 된다. 산동네, 달동네를 그린 ‘우리 사는 이야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그가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 눈과 마음에 담았던 소외된 사람들의 풍경을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집이라도 ‘집’이 갖는 보금자리, 안식처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자화상과 인물화 등 ‘얼굴’에 집중하는 작품 활동도 시도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2008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됐는데, 그 후 나는 정치권과 완전히 이별했다”면서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정치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년 후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금방 흘러가버릴 것 같아서, 임기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평소 관심이 있었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공부할 필요성도 느꼈다.

그래서 홍익대 미술대학원 서양화실기전문과정에서 2년 동안 수학해 2015년 수료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일정 정도 모이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전시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욕심을 내지는 않는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을 화폭에 담으며, 그런 자세로 잘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소외계층 대상 '업사이클링 힐링아트'로 자살예방 교육

강명순 18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명순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사)부스리기사사랑나눔회와 (사)세계빈곤퇴치회의 이사장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는 빈민 운동에 헌신해 왔다. 1986년 직접 창립한 부스리기선교회를 통해 빈곤 청소년, 조손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무담보 소액대출을 국내 첫 도입한 '신나는 조합'을 설립해 빈곤층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결식아동과 해체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실현해내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회를 떠난 후부터는 빈곤층, 소외계층의 자살을 예방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업사이클 힐링아트' 강의와 '업사이클 힐링아트'란, 주변의 버려지는 물건이나 과일 껍질, 씨앗 등을 이용해서,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그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생활고를 비판하는 아이들이나, 삶에 지친 중년 여성, 할머니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전한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도록 옆에서 돕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보고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 이름을 대면서 그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커서(스스로) 예술작품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10년 뒤 너로 인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준다"면서 "이 아이들로 인해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첫 여성 이사장으로 양성평등 기업문화 실현 중

김옥이 18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이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2013년 제14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첫 여성 이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 12개 공공 의료기관 중 최초로 방만 경영을 해소하였고, 특히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을 통해 보장형 준정부기

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DMZ 목침지뢰 부상병 2명을 입원시켜 최신 의족을 제공하고, 전문 재활진료·훈련을 통해 걸어서 퇴원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78개 기관 중 전체 1위를 달성했고, 김 이사장은 '201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소통'과 '감성 리더십'을 경영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17개 소속 기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 직원들을 가깝게 만나는 '스킨십 경영'을 실천 중이다. 또 직원의 68%가 여성인 공단 특성상 여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남녀고용평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2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및 최고경영자상,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으론 17개 소속 기구별 1사 1촌 자매결연과 의료봉사 활동,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 공단 창립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정주아 기자

건강한 즐 / 겨 / 찾 / 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 오세요

지난달 납부한 **진료비**가 정확하게 책정됐는지,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병원**은 어디인지, 매번 약을 챙겨먹으면서도 올바른 **복용법**에 따르고 있는 것인지, 질병이나 수술에 관한 **진료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진 않은지 의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생길 때, 당신 곁에 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여성 공심위원, ‘여성’ 대변자 역할 잊지 말고 ‘짱짱한’ 역할 하라

이계경 17대 공심위원

김애실 18대 공심위원

최영희 19대 공심위원

《여성의정》은 창간 특집으로 20대 총선에서의 여성 후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위원으로 활약한 이계경(17대 공심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애실(18대 공심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 최영희(19대 공심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초청해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사)한국여성의정 사무실에서 방담회를 열었다.

이계경 전 의원의 진행으로 김애실·최영희 역대 공심위원들은 당시 공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이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점은 여성 공심위원일수록 의식 있고 당이 무시 못 할 역량 있는 인사여야 하며 여성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역구 30% 여성공천이 각 당 당헌당규엔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켜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공심위 분위기를 전하며 여성 우선 혹은 전략 공천, 여성 전용 선거구제, 가산점 부여 및 경선 과정 생략 등 실질적으로 여성을 진출시키기 위한 여러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한편으론 여성계가 공천 과정에 주목하며 ‘여성’ 목소리를 강

력히 내줄 것과 함께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증 작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계경 전 의원: 공심위에 여성 위원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아마 17대부터일 것이다. 여야 양당 공심위에 여성을 30% 이상 배정하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각 정당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당시 공심위원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였다. 내부 인사로 홍준표, 김성조, 이방호, 심규철, 이성현 등이 참여했고, 외부 인사로 김석준 한국행정학회장,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 이문열 소설가 등이었다. 여성 위원은 나를 포함해 4명이었다 (이춘호 현 EBS 이사장,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나경원 의원).

최영희 전 의원: 우리 당의 경우 외부인 8명에 내부인 7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원장은 외부인이었다(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나는 내부인이었지만(18대 초선 비례대표 의원) 총선 출마를 안하기로 했기에 외부인과 같은 입장으로 공심위에 참여했다. 당시 여성 위원은 나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당시 문미란 변

호사, 조선희 한국영상자료원장,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

김애실 전 의원: 내가 참여했던 공심위 역시 외부 인사 6명에 내부 인사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았다(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그중 여성은 출마 포기를 선언한 나를 포함해 4명으로 30%를 달성했다(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강정혜 변호사, 이은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당시를 돌이켜보면 나와 강혜련 위원이 여성공천을 위해 엄청나게 투쟁한 기억이 남는다.

이: 여성 공심위원들이 그렇게 안 싸워줬더라면 나 역시 공천(서울 송파병)을 못 받았을 것이다. 18대 공심위야말로 여성 의식이 있는 여성 공심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입증한 실례다. 17대 공심위에서도 이춘호, 강혜련, 나경원 위원과 함께 4명이 푹푹 뭉쳤다. 당시 우리의 주요 목표는 여성 후보들을 한 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구에 일관되게 공천하는 것이었다. 일찌감치 부산,



17대 공심위원을 역임한 이계경 전 의원



19대 공심위원을 역임한 최영희 전 의원



18대 공심위원을 역임한 김애실 전 의원

서울 서초, 경기 일산을 당 우세지역으로 찍찍이 여성 후보를 강력히 밀었고 우리의 이런 노력은 이해훈 후보가 서초갑에서, 김영선 후보가 일산을에서, 김희정 후보가 부산 연제에서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종의 공천 혁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 김문수 공심위원장의 역할이다. 당 우세지역에 여성을 전략 공천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심위를 구성할 때 그냥 여성이 아니라 “짱짱하고 의식 있고 준비된” 여성들이 들어와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발언하고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여성 후보를 밀 때 가장 공격받는 것이 “여성이라고 무조건 공천을 줘야 하느냐”는 것인데, 때문에 낙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여성을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심위에 여성 위원뿐만 아니라 누군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는 위원이 당선 가능 지역에 여성을 보내야 한다고 확실히 결정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결정이 없다면 어떤 명분으로 3선, 4선 지역구 의원을 잘라낼 것인가. 여성 전략공천으로 당이 분열되고 계파별로 난리를 치면 여성 후보의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19대 총선 공심위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점은, 평상시 의식 있고 강한 여성 기질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해온 괜찮은 사람이라도 당선 가능성 있는 여성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지역구 위원장과 푹푹 뭉쳐 여성 후보를 반대할 때 참 많이 섭섭했다.

김: 18대의 경우 한나라당 공심위에선 여성 공천 기류가 강했다. 그 결과 지역구에서 10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나경원, 진수희, 전여옥, 이혜훈, 박영아, 박근혜, 정미경, 전제희, 박순자, 김영선). 반면 통합민주당에선 4명만 지역에서 당선됐다(추미애, 이미경, 박영선, 조배숙). 19대에선(여성 후보 지역구 당선 상황) 역전됐다. 19명의 여성 당선자가운데 민주당 통합당 출신이 훨씬 많았다(여성 지역구 공천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21명을 공천해 13명을 당선시켰고 새누리당은 16명을 공천했으나 4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그 외 통합진보당에서 2명이 당선됐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여야 각 정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김현미, 유승희 의원 등 17대 국회에 진입했다가 18대에 낙선, 이후 이번 19대 국회에 재진입한 실례도 연구해 재도전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 개인적으로 19대 공천에 탈락한 사람으로서 19대 공심위원 10명 중 여성이 2명(당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이에 주 18대 초선 비례대표 의원)밖에 없었다는 게 아쉽다. 이에 주 당시 공심위원의 얘기를 후에 들어보니 “여성으로 싸우기에 너무 힘들고 나중엔 진이 다 빠지더라”고 하더라. 공심위에서의 여성 수적 증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최: 당시 공심위에선 어떻게 여성이 공천되더라도 단독 공천이 아니라 후에 경선을 거치게 돼 있었다. 당헌당규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 공심위 과정에 돌입하면 그 비율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여성공

천 15%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어떻게든 넘겨야 하기에, 정말 여성 후보가 없다면 출마해 낙선되는 곳이라도 여성을 공천해 15%를 채워달라는 게 당시 여성위원들의 입장이었다.

여성 공심위원들이 합의하고 열심히 싸워서 지역위원장으로 수년간 지역을 일구며 고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선 경선 과정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사실이 결단이 다수의 여성 의원 배출에 주효했다. 김영주, 유승희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1등으로 공천돼도 경선에만 나가면 낙선하는 경우가 많으니….

김·이: 그런 조치, 우리 새누리당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당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 단, 경선 과정을 빼주는 것은 여성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여야 한다.

이: 누군가 여성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당이 절대로 무시 못 할 무서운(?) 여성이 공심위원이 돼야 한다.(웃음)

김: 당헌당규에 있는 사항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하면 여성(지역구) 30% 공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최: 그건 당헌당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공심위 차원에선 이를 환기시켜 지키도록 난리를 쳐야 할 것이다.

이: 19대 때 여성공천에 대해 새누리당이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현 여성 지구당위원장을 지켜

주기는 커녕 친박 계열에만 공천이 몰리니… 여성계 지도자 몇몇이 다급해하면서 이인호 선생(현 KBS 이사장)에게 여성 공천을 위해 정당이 애쓰라는 글을 부탁해 선생께서 동아일보에 칼럼을 기고했는데도 정당에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했다.

사실상 외부인사는 아무리 여성 공천을 도와주려 해도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여성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엔 이제 회의적이다.

김: 지금의 공천 방식은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여성계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여성정치 진출을 위한 대안을 계속 내놓았어야 한다. 현재의 공천 방식으로 가면 여성이 전멸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고 지구당이나 분구된 곳에 우선 여성을 공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당에서도 나경원 의원 같은 이들이 이를 앞장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 방안에 대해 여야 양당이 합의해줬으면 좋겠다.

김: 사고 지구당이나 분구 지역에 모두 여성을 공천하면 반발이 세지니 반반 양성평등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이: 사실 사고 지구당이나 분구된 지역은 합쳐서 10개도 채 안 될 테니 의외로 양당 합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최: 근본적 문제에 있어선 국회에 들어온 여성들이(여성 대표성 책무감으로)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니 다 잘하더라는 평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성 국회의

원들에 대해선 일을 잘하는 것보다 외모나 스타성을 먼저 보나….

비례대표제는 여성들이 정치하기에 참 좋은 통로다. 가장 많은 여성이 국회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럴수록 정말 훌륭한 여성들을 뽑아줘야 한다. 지역구 의원은 정책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정치

당 우세지역에 여성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공천 혁명’ 우수한 여성 후보에겐 전략적으로 경선 과정 생략해줘야 여성계가 ‘여성’ 대표성 검증하고 걸러내는 작업 했으면

안 할 결심으로 임기 내 최선을 다하고 나을 그런 여성을 비례대표로 뽑아줘야 한다. 문제는 당 지도부와 계파다. 나한테 잘한 사람 넣어주고 나눠 먹기 식으로 뽑고… 여성과당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김: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거르고 순위 정할 때는 후보 2배수 3배수부터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2배, 3배로 후보가 추천되는데, 후보군 명단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없는 데다가 메일이나 전화로 이상한 소리부터 먼저 듣게 되니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애로가 참 많다.

최: 수많은 후보들에 대해 당직자가 우선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대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 비례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비례대표로 우선 정치훈련을 받고 이후 지역구로 나가니 말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을)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했으면 좋을”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로 4년을 활동했다라도 다시 걸러 지역구로 보내야 한다.

이: 그런 기구나 시스템이 각 당에 없다는 게 문제다. 남성들은 대부분 자기 계파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후보군이 짜여지는데, 여성들은 여기서도 배제된다. 즉, 여성은 한두 명씩 별도로 간주되고, 이런 여성은 꼭 지역구로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거나 의지를 가지는 당 지도부도 없다. 이번 총선에선 특히 이 점이 굉장히 우려된다. 양당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이 40명쯤 나와야 여성 30% 목표치에 가까워지는데… 우리 당에선 이번 20대 국회에 여성이 10명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라는 추측까지 돌고 있다.

김: 공천심사의 경우, 초반에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돼 후에 지역별 심사를 할 때

는 정보도 별로 없고 주의력도 산만해지는 것도 문제다. 우리 당의 경우 수도권 먼저 한다. 경기도와 서울지역 공천심사를 할 때는 공심위원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치열한 분위기였다. 모두 열심히 보고 아웃되는 사람 체크하고 남은 후보를 거르는 작업을 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 모르는 지역을 심사할 경우 후보 면면을 잘 몰라 서류를 봐도 그 사람 파악이 힘들었다. 여성 후보라 반가워 보면, 여론조사 상으론 거의 패배가 확정된 후였다. 그래서 깨달았다. 여성에게 제일 취약한 것은 후보의 됬됨이가 팬찮으나 아니냐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 여부다.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어느 정도 정치적 지명도가 있는 소수의 여성 외엔 거의 모든 지역의 여성 후보가 직면한 문제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공심위가 무조건 여성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역시 한계다.

최: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히 인기투표식이다. 당연히 현역만 되게 돼 있다.

이: 여성 전략공천의 경우, 여성 후보끼리 경쟁시키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 그건 별 상관없지 않을까.

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은 ‘여-여’ 경쟁구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 여-여 경쟁 지역구를 만들었더니 상대 남성 후보가 당원들을 동원해 왜 우리 지역에만 여성을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절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될 것이다.

김: 여성 전용 선거구제? 수도권에선 가능할지 모르나 영호남에선 당색으로 당선 많이 결정되기에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선 당연히 낙선할 것을 알면서도 출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대도시 수도권 중심만으로도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공천하다 보면 남성들이 너무나 뚝뚝 뚫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17대엔 정치개혁이란 거센 화두와 맞물려 공심위원들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됐는데, 18대 공심위 뒷얘기를 들어보니 배후 조종 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 한창 회의 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결정 사항이 바뀌곤 했다고 한다. 공심위는 절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기구가 아니라 대리기구라는 점에 대부분이 합의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 19대 때의 민주통합당 공심위는 상당히 독립적이었지만 심사 시간이 너무 길려 심사를 충분히 다 못한 게 유감이었다.

이: 외부도 결국은 다 계파별 의원들의 대타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는가. 정치학자건, NGO건 말이다.

김: 귀가 아플 정도로 논쟁하고 말로 엄청 싸우곤 했는데, 11명이 결국 투표해 6명의 후보 공천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고향 지르는 과정에서 들을 것 다 듣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가 괜찮으면 같이 지지해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몇

몇 사람은 ‘대리인’ 발언을 막 하기도 했지만, 공심위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는 룰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 공천하는 데 하루가 다 가더라도, 중간중간 지독하게 격돌하더라도 합리적 결과를 그만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최: 우린 큰소리 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내가 출마를 안 하기로 했으니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더라. 그래도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지난한 작업이었다.

김: 지금 생각해보면 공심위원 할 때도 정치를 잘 몰랐던 것 같다.(웃음) 내 생각에 밖에서 보기에 국회의원 그만 좀 하면 하는 사람은 30% 정도 공천 탈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현역 ‘물갈이율’이 그 정도는 돼야 ‘판갈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들하는데, 당연한 얘기다.

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때 항상 조는 사람에게 도대체 왜 공천을 주지 하는데, 경선에서 살아남아 결국 당선돼 다시 들어오는데 어찌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치마 입었다고 다 ‘여성’ 후보는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 정치 흉내 내는 여성,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 여성인권 관련해야 무런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을 왜 ‘여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들을 위해 도대체 왜 여성운동권이 싸워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일단 어떤 여성이 후보 물망에 오르면 여성계 차원에서 여성 대표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회 들어와서도 최소한의 여성 대표 역할을 한다.

이: 그걸 평가할 여성단체가 있나? 요즘 여성계의 소신 발언이 많이 줄어든 게 아쉽다. 역량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다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려 하는 것도 문제다.

김: 한편으론 여성이나 양성평등만 너무 주장하다 보면 정치권에 뱀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

이: 여성계가 20대 공천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새누리는 워낙 보수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성 후보를 적게 내는 것에 대해 자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최: 우린 19대 후보 공천 시 15% 가산점을 줘서 경선에 나갈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하니 여성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우수하면 105점을 받아 경선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남성 지역위원장이 공심위에서 심사 결과 3등을 하면 세 명까지 경선에서 붙을 때도 있었다. 경선 룰이 있어 과정마다 점수화되기도 했고.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회의 출석률, 발언 및 질의 등을 다면평가 했고 동료 의원들간의 평가 점수까지 합산했다. 그렇게 해서 하한선 몇 점이면 다 탈락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더 쉬웠다.

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공천 과정이) 계량화돼 평가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최: 사실 우리 당도 이런 방법은 18대 총선부터 적용했다. 언론도 이런 계량화된 방법에 주목했다. 심사 결과 1등부터 10

등까지는 공표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 간 상임위 다면평가에선 후보의 진면목이 금방 드러난다. 당 대표나 주요 당직 외엔 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회의에 제대로 안 들어와 간혹 들어오면 자기 발언만 하거나 뒷북이나 치고, 중복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국회

으론, 양당 공심위가 구성되면 여성계에서 공심위원에게 여성공천을 적극 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 정치판이 난장판이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데 그럴수록 여성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 합리적 정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심위에 생겨나야 한다.

여성 비례대표 잘못 뽑으면 당과 여성이 망하는 지름길 비례대표 여성 60% 할당, 성명서라도 내고 반대하자 지역구 여성 30% 할당 엄수하도록 여성연대로 압박해야

의원 150명 줄여야 한다는 데 정말 찬성하고 싶다.(웃음)

이: 공천에 작용하는 당 대표의 영향력이 정말 그토록 큰가.

김: 당 대표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당내 중진 파워를 가진 사람도 동의해야 공심위가 구성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 공심위 내부 인사는 큰 계파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 주로 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이제 20대 총선 공심위에 대한 당부를 해보자.

김: 공심위 여성비율 30% 원칙은 꼭 지켜야 하고, 해당 여성 위원은 진보나 보수 성향보다는 ‘여성’을 대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다음

최: 정치권의 오래된 주장, 여성 인재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실제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를 보면 간혹 너무 경쟁력이 없거나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환장(?)한, 정치 욕망만 있는 경우가 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뒷바라지만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여성 투사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후보로 올라오는데, 그건 정말 아니다. 비례대표는 사람이 깔끔하고 순수하고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지역구의 경우엔 그 험지에서 살아 올라올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착잡해진다.

이: 당선 가능 지역에 여성 우선공천을 해야 한다. 가령 새누리의 경우 대구에서 2개 지역을 여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2개 지역을 여성으로 공천한다면 훌륭한 여성 인재가 모여들지 않겠는

가. 비례 준다고 하면 다 몰려오듯 당선 가능성만 높다면 훌륭한 여성 인재가 나올 것이다.

최: 각기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성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규정이나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당장은 목표 달성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목표치에 가까워진다. 이에 대한 전제는 어느 한당이 아니라 양당이 이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면 최소한 여성 후보에 대해 여성계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국회가 진정 권위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에 여성 60%를 할당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호응하면서 여성 의원들이 이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전체 여성 의석은 1,2석 정도 증가하는 정도다. 여성에 대한 시혜처럼 생색내는 이런 조치는 여성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역구 여성 의석 하나라도 더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 실제로 그게 실현되면 그것 하나가 지고 엄청나게 인심 쓰는 척하면서 지역구 여성 공천을 대폭 줄이는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누가 알겠나. 일종의 면피용 조치 아닐까.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는, 있는 규정만이라도 여야가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원혜영 의원

당 살릴 새 활기 ‘여성’에게 찾는다

여성진출확대 위해

20% 전략공천 줄곧 주장

지역구 여성공천 30% 규정

당헌에 반영시켜

다둥이지원법, 성범죄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발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하는

이미경 의원 롤모델로 꼽아

여성 정치인 양성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당시 총선 여성공천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우리 당에선 여성이 경선할 경우 20% 안팎의 가산점이 있는데, 난 이를 최대 30%까지 올리자고 주장해 왔다. 우리 당 최초로 여성 지역구 공천 30% 규정을 만들어 당헌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여성과 관련된 대표 법안을 상당히 발의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최근에(2015년 10월) 일명 ‘다둥이지원법’을 발의했다. 다자녀 가정(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5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성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법안은 성폭력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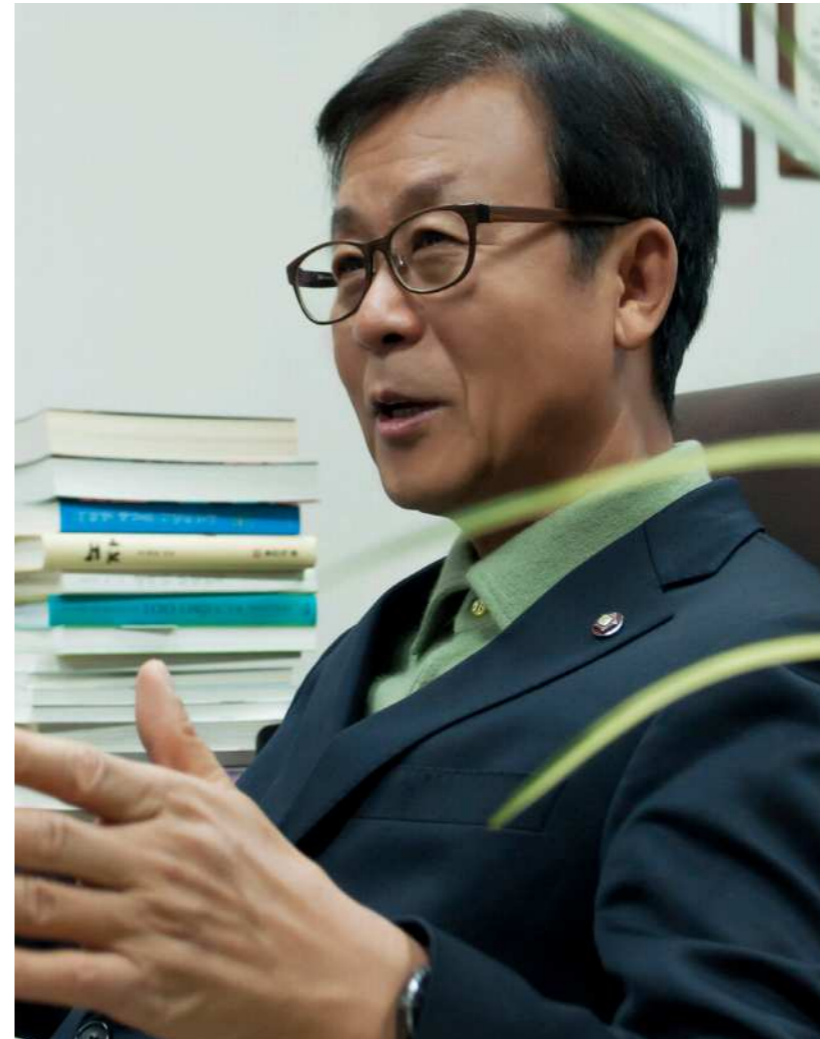
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 정치인 롤 모델이 될 만한 여성 의원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미경 의원을 우선 꼽고 싶다. 대선(5선) 의원으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열심히 해왔고 19대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발휘했다. 우리가 제1당만 되면 국회의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정치문화 변혁을 위한 제안을 듣고 싶다.

일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정치자금 등



부천시장을 두 차례나 역임하면서 4선 의원을 기록한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재 영입의 원칙으로 “100% 오픈프라이머리 불가, 20% 전략공천”을 줄곧 주장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장을 두 차례 하면서 부천 발전 방안으로 문화특화 전략을 택한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점점 호응을 얻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등의 행사가 대표적 실례다. 부천시의 만화사업과 정책이 대한민국의 만화정책이고 사업이 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 우리 부천시가 운영하지만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4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을 공동발의했다. 다행히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모두가 성별·연령·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문화와 호스피스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화 이후 정치 청사진을 ‘생활정치’로 일찌감치 잡았고, 그 본격적인 작업으로 김성곤, 김춘진, 박완주, 부좌현, 오제세, 양승조, 진성준, 조정식 의원과 다수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이사로 참여시켜 2009년 생활정치연구소를 발족했다. 연구소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으로 “남성 위주의 부조리한 사회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은 여성”이 여러 이해관계에 비교적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들었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대표적 의정 활동을 꼽는다면.

19대 총선 당시 치안·안전서비스 강화를 공약했는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전면 확대 설치했다. 한편으론

진영 의원

정부가 여성의 역할과 권리 보장하도록 힘썼다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정활동에 적극 지지 ODA기본법에 양성평등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 조항 넣도록 지원 IPU 활동하며 탈북 여성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환기하기도 아동·청소년 위해 의정활동하는 신의진 의원 롤모델로 꼽아

18대에선 ODA기본법에 양성평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이번 19대에선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당을 초월해 여성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국회의원이 처음 된 17대 때부터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성평등지수가 최하위권이어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며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사회구조라는 생각이 강했다.

ODA기본법에 양성평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나, 성인지 예산제도를 안착시키면 정부의 시스템에서 일정 부분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사회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여성 의원님들과 교류했다. 신낙균 의원님과 성인지예산 평가세미나도 하고, 상임위 예산·결산 때도 이런 부분을 정부에 자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성을 위한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꼽으신다면.

유엔 산하의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 활동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중 특히 IPU에 남북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설을 제안하면서 탈북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 2011년 IPU 집행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세미나에서 사회적 젠더 밸런스(Gender Balance)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 의회에서 젠더 밸런스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구조 개선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던 일, 고위 공무원들 중 여성 간부의 부족 등을 지적했던 일 등도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난 여성 의원들 중 여성 정치인의 롤 모델로 꼽을 만한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보건복지위원



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당) 신의진 의원을 꼽고 싶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사회현상과 정부정책이 괴리되는 부분을 잘 짚어내고 있다. 근래에는 학교 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을 발의하며 활동하고 있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문화 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꼽으신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정치, 화합과 통합의 정치다. 평소에도 나는 정치에서 싸움을 피하며, '부쟁의 정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투력이 없다'는 비난까지 받았다.(웃음)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계파 정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신낙균 18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ODA기본법) 상정 당시 모든 원조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기본법에 명기할 것을 제안했다. 순식간에 썰렁해진 분위기 속에 한 남성 의원이 그의 제안에 지지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결국 그의 제안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됐다. 신 전 의원이 "구세주"로 지칭한 그 남성은 바로 진영 의원(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3선의 진 의원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지역(용산)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도 궁금하다.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미래어린이집이 2014년 개관했고, 6가지 유형의 돌봄 서비스의 맞춤형 돌봄도 하고 있다.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해 동네를 환하게 만드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도 시범적으로 펼쳤다. 또한 곧 개관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인큐베이팅 공간을 용산구에 있는 숙명여대에 유치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10년 가까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국가공원화'라는 큰 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용산공원을 생태공원화하면서 개발세력으로부터 이를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4년 12월엔 용산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6개 단위 공원'에서 '단일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용산공원을 대한민국 국민과 용산구 주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11차례나 선거 출마 정치 소용돌이 속 주역으로

김옥선 7·9·12대 국회의원

12대 국회 당시 국방위원 명단을 보던 이재형 국회의장은 한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 김 의원 맞아요?”라고. 그가 말한 “김 의원”은 ‘남장여자’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김옥선(82) 전 의원(신민당)이었다. 6대 국회의원 선거에 첫 출마, 최근 17대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나 총선에 출마해 7·9·12대 의원을 역임하고, 1992년 14대 대선과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일생 열한 차례나 험난한 선거전을 치러냈다.

2015년은 특히 그에게 소화가 깊은 해였다. 이른바 ‘김옥선 파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1975년 10월 8일 국회 본회의장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그가 스탈린, 히틀러 등 세계적인 독재자를 비판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박”이라 부르자 여당 의원들은 극심히 반발했고 정 일권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법사위에 그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이 제명안이 처리되기 직전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10년간의 정치적 해금기가 뒤따랐다. 그러나 현재 재국회회의록엔 당시 그의 유신 비판 발언은 “의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는 설명과 함께 ‘- - - -’ 표시로 삭제돼 있다. 이에 그는 지난해 9월 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삭제된 국회 본회



7대 국회 당시 초대 문공위원을 맡아 문화공보부 국감에 참석, 질의하고 있는 김옥선 의원. 사진 제공, 국가기록원



김옥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했다. 사진 출처, 노컷뉴스

의 회의록을 복원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때 그 사건이 잘 처리됐더라면 유신 체제가 좀 더 빨리 끝났을 거라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해... 본회의 전 김영삼 총재 주재 회의에서 독재자 발언에 초점을 맞추자고 다들 몇 차례나 얘기했는데도 한 명도 이 발언을 안 해 내가나선 셈이야. 후에 YS에게 의논했더니 제명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계속 버티면 야당(신민당)이 지리멸렬해질 것 같아 그 말에 따랐지. 그 결과는 가혹했어.

10년간 공민권을 박탈당하면서 말고 있었던 송죽학원, 정신여고, 에반에 셀모 자원 이사장 자리를 다 내려놓아야 했어.

후에 YS가 대통령이 된 후 몇몇 동료 의원들이 ‘그래 YS가 청와대에 부릅디까? 가락구수 한 그릇이라도 사 줬습니까? (YS가 모른 척하면) 정말 안 되지’ 하더라고.(웃음) 해금 시절 YS가 위로를 하고 싶었던지 동경에 같이 가자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안을 거 뒤들이더라고.”

그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자신이 6대부터 국회에 입성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자라 속 좁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선거자금을 넉넉히 쓴 탓에 다리미표, 피아노표 등 부정 투표가 의심되는 투표함을 압류할 비용이 없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교훈 삼아 7대 선거 때는 선거비용을 일정 부분 남겨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부정이 의심되는 선거구에서의 투표함을 압류, 선거 후 1년여의 시간을 거쳐 당선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7대 국회에선 초대 문공위원을, 9대 국회에선 농수산위원을, 12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래도 의정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늘 짙은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3선 의원인데도 너무 공백기가 많아 제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못 했어.”

이 투사적 여성 정치인의 정치여정이 좀 더 순탄했더라면 우리는 여성 국회의장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은경 편집장

“내 계파는 오직 ‘여성’, 치열하게 싸웠다”

김정숙 14·15·16대 국회의원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회장은 14대 국회 후반기에 비례대표(신한국당)로 국회에 첫 입성, 이후 16대 국회까지 내리 3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을 기록했다.

“15대는 재선이었고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여성특위위원장을 맡아 정말 신나게 일했다. 그때까지도 국회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남성 중심적 분위기여서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당원을 자신의 부인처럼 헌신적인 서포터스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성’을 위한 발언을 하면 ‘여성운동 하려면 왜 국회에 들어왔느냐, 여성단체로나 가지’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던 때였다. 이랬던 분위기가 15대 때부터 차츰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역할이 컸다. 측면 지원 덕분에 15대 국회 끝 무렵(국회·지방의회) 여성 비례대표 30% 할당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사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법이 통과되는 자리에 가보니 당초 들어가기로 했던 여성비례 30% 할당 조항이 쏙 빠져 있어 밤늦게 민주당 신낙균 의원을 급히 찾아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짰다. 이후 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비례 30% 할당을 포함한 정당법 수정안 제안 설명을 했고 곧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



김정숙 전 의원이 가장 신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억하는 때는 국회 여특위원장 시절이다.



김 전 의원은 현재도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과로 이어졌다.

그날 새벽 이 총재를 찾아가 ‘당론엔 반하지만 난(여성할당제에) 찬성하겠다. 그러니 총재께서는(이 법안에) 서명하는 여자들을 다 버리려면 버리십시오’라고 간청 아닌 간청을 했다.”

새벽에 총재를 만나고 나온 직후부터 동료 남성 의원들이 “김 의원님, 우리 방으로 법안 보내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그날 아침 이 총재도 출입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당론은(여성할당제에) 반대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는 언질을 줬다.

“당시는 당보다는 ‘여성’이 우선이었다. 15대 때는 신낙균 의원을, 16대 때는 최영희 의원을 카운트파트너로 삼아 ‘여성’ 관련 사안에 대해 자신의 당내 정보를 교환하면서 당 지도부가 여성 이슈나 정책을 경쟁하는 분위기로 의도적으로 몰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따라온다, 혹은 한나라당도 따라온다, 부추기면서.(웃음)”

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여특위위원장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여특위를 여성위로 상설화할 토대 마련에 주력했고, 출산전후휴가를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한 고령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주력했다. 특히 16대 국회 당시 그가 발의한 법안들은 남성 의원들과 보수 성향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재혼해도 자녀 성은 그대로인 친양자법 개정과 2주 상해진단만 나와도 가해 배우자를 구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다. 남성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동물의 왕국이나”며 냉소를 보냈고 법안 공동발의 사명을 거부했다. 오죽하면 평소 그와 친했던 법사위원들조차 연락을 끊고 그를 피해 다녔을까.

그는 후배 여성 의원들에게 “지역구 공천 여성 30% 할당만은 기필코 관철시켜달라”는 간절한 당부도 했다. 열정적인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테이블 한쪽에 자리 잡은 ‘여성정치발전인상’(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15.7.22)의 투명한 빛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의정시절 키워드는 가정폭력방지법·여성할당제·성평등기본법”

신낙균 15·18대 국회의원

15·18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을 역임한 신낙균(사)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은 자신의 가장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할당제, 성평등기본법이란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매 맞는 딸을 보호하려 사위를 우발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이 불붙었으나 14대 국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그는 15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첫 법안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에서의 병합심사 후 1997년 11월 15일 법사위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파를 던졌다. 법사위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표 발의자인 여야 원내총무의 이름만 있을 뿐 그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이 법은 내가 시작안 했고 버티지 않았으면 통과 안 됐을 것”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국가의 보호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특히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최고로 잘한 일로 꼽고 싶다”고도 술회한다.

또 하나 그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문화관광부장관 시절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당시로선 여성 시구가 상당히 드물었다.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을 맡아 전 세계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폭을 넓혀 활약 중이다.

2000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이 포함된 정당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을 때다. 이어진 투표 결과는 재석 275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8인이었다. 여성계가 15년간 줄곧 주장해온 여성할당제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순간이었다. 17대 국회에서 이 법률은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는 “당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절감했다”고 회고한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그가 집중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 마련이었다.

그는 입법자문위원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09년 6월 ‘성평등기본법안’ 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여성부는 불수용 입장을 고수, 이후 ‘여성정책기본법’이란 정부안을 내놓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두 법안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윽고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하듯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이란 이름을 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이 실현됐다.

15대 국회 후반기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성폭력 문제에 집중했다.

“국감에서 학교 성폭력 문제가 다뤄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집중 감사는 교육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사에게로까지 확대하도록 작용했다.” 후배들에게 “우선 현실정치를 좀 알고 일관된 이념과 철학으로 그러나 융통성 있게 정치할 것”을 권한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인들 얘기를 뭘 믿어?’란 말을 종종 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인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난 거짓말을 안 하겠다. 대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선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남겨두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사람을 선택했던 정책이나 정치노선을 선택했건 무엇이든지 하나를 정하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처신하려 노력했다. 그건 내 정치 스타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경 편집장 사진 허인태 기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매진, 여성정책개발원 탄생 작업 못 잊어”

이경숙 11대 국회의원

이경숙 전 국회의원(11대, 1981~85)은 국회의원보다는 4년 연임(1994~2008)의 숙명여대 총장으로 더 유명하다. 이전 의원의 담담한 얘기를 들어보니 국회의 원으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학자로서 준비된 길은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는 민정당 창당 즈음 전문가로서 영입된 경우다. 국제정치와 통일이 전문 분야라 그는 임기 내내 외무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자 때는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이 전부였는데, 국회에선 의견을 제안하면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그때 국회 분위기는 여야간 갈등보다 오히려 공부하고 일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외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전체 18명 위원 중 11명이 정치학 석·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고 이만섭 국회의장, 앵커 출신의 봉두완 전 의원, 여야 각 당 대표 등이 위원이었고, 거의 늘 세미나 분위기였다.(웃음)”

그는 특히 외무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YWCA 출신으로 의원실도 서로 이웃했던 김현자 전 의원과 에피소드가 많다.

“김 의원과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26일간 미국, 유럽, 아시아를 돌면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새롭게 했다. 당시 프랑스에 지금의 여성가족부 비슷한 조직이 있다는 것도 알게



IPU APPU 대표 시절. 당시 여야 여성 의원들과의 협력 관계는 정책을 의논하는 커뮤니티 '목련회'로 이어졌다.



국회를 떠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첫 여성 회장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돼 지금의 여성가족부 같은 기구를 구상했고, 각국의 여성정책 현장을 돌면서 세미나와 강연도 하면서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입 추진을 함께 했고, 법안 공동작업으로 여성정책개발원(현 여성정책연구원)의 근거가 되는 법도 만들었다.”

그는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문제로 정부 설득에 애를 먹었고 법사위에 달려가 이해를 구하기도 한 일을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유엔 관련법이 상위법이라 유엔의 지지를 얻으면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여성권익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했다. 협약가입 여부가 국제사회 인식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었다.”

그는 1993년 여성정책개발원 10주년 때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려면 남녀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설득에 적극 공감해준 당시 남성 의원들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여성 특화 연구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제의원연맹 아시아·태평양의 의원연맹(IPU APPU) 대표로 임기 내내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시아 여성 의원 세미나 한국 개최를 성사시켰다. 여야 여성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세미나의 실제 사무국 역할을 해줬다.

“국회는 내게 교육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 더할 수 없는 좋은 훈련의장이 돼주었다. 국회에 들어갔을 당시 30대 중반의 주니어 그룹에 속해 있어서 선배들이 다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주었던 것도 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말 CEO형 총장 역량을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5년 말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회에서의 인상적인 경험은 그의 은퇴 후에도 계속된 인연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은경 편집장

한복에서 청바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여성 국회의원들의 스타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예인 못지 않게 주목을 받는다. 남성 의원들의 경우 짙은 색 양복과 타이 등 비교적 정해진 스타일인 데 비해, 여성 의원들은 보다 다양한 양식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시작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제1대 여성 국회의원인 임영신 의원과, 2대 국회의원이 된 박순천·박현숙 의원들까지만 해도 단아한 색감의 전통 한복을 입고 등원했다. 가뜩이나 여성의 정계 진출을 마땅치 않아 하던 사회 분위기와 시대 상황, 동료 남성 의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여성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스타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번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4년 1월, 비례를 승계받아 뒤늦게 국회에 합류한 박윤옥 의원(새누리)은 화려한 한복차림의 등원으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파격이 일어났다. 7대 김옥선 의원(신민당)의 남장이 바로 그것.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헤어스타일도 남성식 쇼트컷트만을 고집했다. 역대 최연소인 33세에 '처녀' 의원이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큰 이슈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장을 해 '도전적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15대 국회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의원들은 스커트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 '불문율'을 깨뜨린 주인공은 바로 이미경 의원(당시 통합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과 신낙균 의원(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이다. 두 의원은 '일하기 위해 국회에 왔는데, 일하려면 바지가 편하다'는 생각으로 15대 국회에 첫 등원하며 바지 정장을 입었다. 당시 여성 의원의 바지 정장 차림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으나, 점차 바지 정장은 통용됐다.

17대 국회 이후 여성 의원 수가 많아지면서, 여성 의원의 패션은 좀 더 다양해졌다. 정장 재킷에 치마 혹은 바지로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화사한 컬러나 스타일을 통해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선 의원(새누리당)은 영국 의 대처 총리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부드럽고 강단 있으면서도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까지도 적절하게 맞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귀족 패션'으로 일컬어지는 나경원 의원(새누리당)은 평소 절제된 스타일을 즐긴다. 과한 패션 소품을 배제하고 흰색의 이너웨어를 깔끔한 재킷에 받쳐 입는다. 반면 옛지 있는 셔츠의 변화를 통해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보인다. 여기에 스카프나 코르사주, 브로치 등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정장 스타일을 깨는 파격적인 패션으로 화제가 된 의원도 있다. 바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그는 평소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동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로 깔끔한 정장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러나 의정보고회 등 지역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지역을 위해 뛰는 '일꾼'의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강렬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연출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션은 단순한 '멋 내기'를 넘은 하나의 이미지 전략이다. 여성 정치인들이 대중 어필을 위해 퍼포먼스에 가까운 연출을 시도하는 이유다.

정주아 기자



사진 제공, 국가기록원

한복 차림 vs 남장 패션... 극과 극의 대비

이 사진 한 장에서 박순천 의원(오른쪽 첫째)의 단아한 전통 한복 차림과, 김옥선 의원(왼쪽 둘째)의 남장 패션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두 의원은 1970년 당시 문화공보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극과 극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사진 제공, 박윤옥 의원 홈페이지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한복 차림

국회 본회의장에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여성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2014년 2월 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승계한 박윤옥 의원이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의원선서를 해 주목받았다. 이후 박 의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종종 한복을 즐겨 입고 있다.



사진 제공, 유은혜 의원실

국회의원 패션에 청바지도 추가?

유은혜 의원은 종종 캐주얼 차림을 선보이곤 한다. 의정보고나 지역행사 등의 자리에 청바지나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서는 것. 평소 여느 여성 의원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정장 재킷에 바지나 치마 정장을 주로 착용하지만, '일하는 일꾼'의 이미지를 부각해야 할 때는 청바지 차림 등의 활동적인 패션을 보여준다.

‘새 정치’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될 것

이계경

편집인·17대 국회의원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여성가족부까지 정부부처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여성을 받아들이고, 여성주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아직도 미미해 보인다.

세태에 떠밀려 말로는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허공에 맴도는 소리만 들리고 쇼윈도 정책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9% (2015년 1분기 기준, 여성가족부)에 그쳐 있다. 출산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계속되는 저출산은 어떠한가?

저출산을 논하는 테이블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출산을 포기하려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점점 출산율은 하락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실례만 보아도 여성정책은 곧 국가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수립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난감해진다.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화를 시행하는 곳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남성이고, 가부장적 사고를 못 벗어나는 남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양성평등 국가를 말로만 외치는 것

이 아닌, 진정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시급한 국가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성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여성이라고 다 여성주의적이지 아니다”라는 논의는 차후 문제다.

일단 여성 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30%는 넘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 30% 달성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여성계가 단계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안, 첫째 분구되거나 사교 지구당에 여성을 우선 공천, 둘째 양당 우세 지역에 30%는 여성으로 공천, 셋째 경선 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꼭 실현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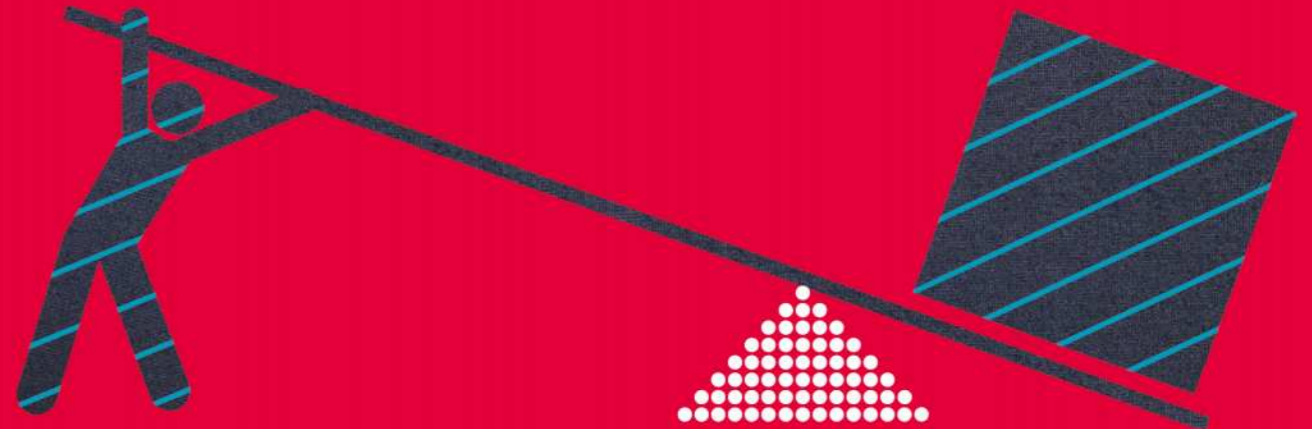
선거구 획정조차 국민의 입장보다는 기득권자 이익에 우선해 눈치 보며 미뤄버린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성을 보라.

이제 여성의 참여 없이 개혁은 없다.

정치권은 여성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도 여성 참여를 지지하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양성평등 내각을 실천하는 프랑스처럼 되려는 꿈은 아직 요원하지만, 여성 의원 30% 달성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다.

20대 여성 의원이 몇 프로 배출될 것인지 엄밀히 지켜보면서 남성 중심 정치권의 반성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성공으로 영차!

중소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렛대, 코바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더 높은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소비자 및 만나는 길을 찾아드리는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 우리 기업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열어드리는 성공 파트너로서 더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BK기업은행은 희망일기장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이 자라고 꿈이 현실이 되는 나라
IBK기업은행이 희망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